

## 지부지회 현황파악 및 순회 현재 12개 지부지회 방문해

지난 10월부터 참교육학부모회 조직위원회에서는 지부지회 현황 파악을 위한 전화조사를 시행하고 이를 토대로 지원이 필요한 지부지회를 순회하고 있다. 지난해 권리제한을 받은 지회 두 곳을 포함해 12개 지부지회를 본부와 지부가 2인 1조로 순회했고 앞으로도 6개 지부지회를 순회할 계획이다.

지부지회 현황 파악을 위해서 10여 가지 항목을 조사했다. 그 항목들을 살펴보면 집행위원회 현황, 회의의 주기, 집행위원 인원, 회의 참석 인원, 학부모신문 발송 현황, 하반기 사업계획과 중점사업, 총회준비여부, 지회 총회 준비 단위, 전국 총회 참석 여부, 소모임 현황, 지부회의 결함 현황, 연대 기구

현황, 지회운영의 어려움 등이다.

42개 지부지회의 현황을 간단하게나마 파악하면서 활성화 된 지부지회와 침체된 지부지회의 요건 등을 건주어 볼 수 있었다. 이후 지부지회 활성화를 위해서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진단할 수 있어 의미있었다는 평가다.

또한 지역의 활기와 에너지를 느끼고 재충전할 수 있는 뜻 깊은 일정이었고 이후로도 좀 더 폭넓게 지부지회를 순회할 계획이다.

최주영(조직위원회 위원장)



11월 2일(화) 우리회와 전교조 그리고 학생인권조례서울운동본부가 공동으로 주최한 '학생인권조례시대, 무엇을 할 것인가?' 토론회가 서울 홍사단교육운동본부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오동석 아주대 교수의 '학생인권조례의 의의와 과제'와 최형규 수원 유신고 교사의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제정 이후 교육현장의 모습과 안착화를 위한 주체들의 과제'가 주제로 발표되었다. 우리회 최주영 부회장은 토론자로 참석해 '학생인권조례의 현장정착을 위한 학부모의 역할'에 대한 토론을 펼쳤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대학입시경쟁교육을 타파하고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교사에 대한 인권감수성 신장을 위한 교육이 절실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 학부모 진로교육 '우리 아이 미래에 날개를 달자'

우리회 특별위원회 교육팀에서는 지난 11월 18일(목)을 시작으로 <학부모 진로교육-우리 아이 미래에 날개를 달자> 강좌를 개최했다. 희망제작소 박원순 상임이사의 '세상을 바꾸는 천 개의 직업'강의에 40여 명의 학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지하면서도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시작되었다. 이어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윤지희 공동대표의 '진로, 가치를 만나다', 송탄고 양운택 교장의 '미래를 준비하는 학교', 성공회대 고병헌 교수의 '미래사회 이해와 진로교육 탐색' 강의가 12월 9일까지 진행된다.



## 경기도 혁신학교 학부모 간담회 개최



활발하게 진행했다. 그 결과 12월 중 간담회를 다시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혁신학교 학부모네트워크를 꾸리는데 힘을 모아갈 전망이다.

우리회 특별위원회 새로운학교만들기팀 주최로 지난 11월 11일(목) 경기도교육청에서 '경기도 혁신학교 학부모 간담회'가 열렸다. 그동안 경기도 혁신학교 인터뷰를 진행했던 새로운학교만들기팀은 이 날 참석한 경기도내 4개 혁신학교 10명의 학부모와 함께 학교 간 상황을 공유하며 혁신학교에서 학부모의 역할에 대한 토론을



참교육학부모회 후원콘서트로, 수익금의 일부가 기부됩니다

★ 언제 | 2010년 12월 29일(수), 30일(목), 31일(금) 오후 8시  
★ 어디서 | 서강대학교 메리홀(서울시 마포구 신수동 1번지)

★ 입금계좌 | 신한은행 100-016-742601 참교육학부모회  
★ 예매 및 문의 | 02. 393. 8900

단신

학부모수첩 제작 배포

우리회는 다가오는 신묘년辛卯年을 맞아 회원들에게 배포할 2011 학부모수첩을 제작했다.



1회 도서관 살리기 2회 교장공모제 학교 3회 2010우리교육에바란다 4회 지역아동센터 5회 새터민학교 6회 꿈꾸는교실 7회 행복한 성적표 8회 공간만들레 9회 교육소외계층 지원 교사모금  
10회 제법 없는 학교 11회 배움의 공동체 12회 고양 서정초등학교 13회 양평 수입초등학교

## 물빛 닮은 아이들의 행복을 찾아서 양평 수입초등학교

수입초등학교는 양평 양수리에서 북한강을 따라 자가용으로 가다보면 20여 분 걸리는 강 옆에 자리 잡은 아름다운 작은 벽지학교이다. 작년 2학기 초만 하여도 60명이 채 되지 않은 학생 수에 언제 통폐합되어 폐교가 될지 모르는 매우 불안한 학교였다. 교장선생님께서는 어떻게든 학교를 유지하기 위하여 본교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 상당수의 장학금을 지급하면서까지 학생 유치에 노력하였지만 그해 신입생은 5명뿐이었다. 현재 학교 가까이 살고 있으면서도 이웃학교로 다니는 집에 찾아가 갖은 방법으로 설득도 해 보았지만 단 1명의 학생을 늘리는 데도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급기야 교사들 사이에서도 복식 수업 또는 통폐합에 대한 불안한 마음에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학교 홍보에 저마다 매진하기로 하였다. 한 분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다양한 학교 교육활동 모습을 올리고, 다른 분은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이웃학교의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였으며, 또 다른 분은 친인척을 설득하여 우리 학교로 전학시키도록 설득하겠다는 선생님도 있었다. 하지만 한계가 있었으며 많은 고민과 논의 끝에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는 학교가 변해야 한다, '교육과정'이 변해야 된다는 생각에 동의하게 되었다. 그해 11월, 우리 학교는 학부모 대상으로 2010학년도 교육과정 설명회를 하게 되었는데 대 성공을 거두었다. 본교 학부모의 4배가 넘는 인원이 참석하여 그 어느 때도 본적이 없는 진지하고 열정이 넘치는 분위기였다. 채 한 달도 못되어 30명이 넘는 학생이 전입하게 되었다.

우리 학교의 많은 학생들은 학교에 오는 게 즐겁고 행복하다고 거침없이 말한다. 한 학부모는 일요일인데 아이가 학교에 가자고 하도 때를 써 30분이나 차를 타고 학교에 와서 놀아주었다는 경험담도 들었다. 이유를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그냥 재밌어서요'라고 간단히 말하지만 아이들의 노는 모습을 지켜보면, 작년에는 눈보라가 휘날리는 그런 날씨에도 구렁대에 모여 팽이를 돌리는 아이들로 시끌벅적하였고, 요즘은 추운날씨인데도 운동장 곳곳에 모여 옹기종기 놀거나 축구, 민속놀이 등을 하는 학생들로 북적인다. 교사들은 저렇게 놀다가 갑자기 걸리지 않을까 걱정할 뿐이다.

'동부가 너무 재미있어요'라고 하는 학생은 알아보지 못했지만 수업활동 도한 '그냥 재밌어요'라고 말한다. 일반학교와는 다르게 80분 단위의 교육과정 시간운영을 해 저학년 학생들의 발달단계에는 맞지 않는다는 비평도 있지만 아이들은 잘 적응하고 지루해하지 않는 것 같으며 담임교사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물론 교사 중심수업으로 이끌어 간다면 많이 힘들어하겠지만…….

올 3월 혁신학교 지정으로 전입 문의가 쇄도하였으나 슬기롭게 잘 해결해 나갔으며, 덕분에 지원예산으로 그동안 학부형 눈치 보며 어려워했던 많은 체험학습을 경험하게 되었다. 전교생이 함께 체험한 서해안으로의 바다학교, 배 밑머리 힘들었던 울릉도·독도 탐방, 별자리 체험 활동, 학년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년단위 체험활동 등은 공부는 교실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충분히 일깨워주었을 것이다.

김홍식(수입초 교사)



사진 = 수입초등학교 제공

새로운 교육환경의 변화로 나라 전체가 혁신학교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다. 90년 초에 불었던 열린교육처럼 10년이 채 지나지 않아 바람처럼 사라져버린 그런 악몽이 반복되지 않을까 우려도 된다. 또한 교육청 주관의 혁신학교 연수, 지정만 되면 혁신학교가 되어버린 변화의 틀 안에서는 모두가 바라는 참교육과는 거리가 많이 느껴진다. 우리 학교도 혁신학교를 추진하면서 많은 논쟁과 시행착오를 겪으며 여기까지 온 느낌이다. 하지만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신나고 행복한 학교가 되지 않을까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것은 학생들을 생각하고, 교육을 얘기하고, 학교시스템을 걱정하는 동료교사들의 열정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모처럼 신선한 바람으로 다가오는 혁신학교에 대한 희망이 진정한 우리 교육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

김홍식(수입초 교사)

## 신나는 학교, 행복한 아이들



사진 = 수입초등학교 제공

북한강 아침 물안개가 자욱한 운동장 한가운데 전교생이 모여 1박2일로 별자리 체험학습을 떠날 준비에 아이들이 한껏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찾아가는 여주 세종천문대와 세종대왕릉 견학을 위해 미리 학교에서는 모형 해시게도 만들어 보고, 집에서 별자리와 세종대왕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된다는 야단법석을 떨었다. 아마 평소에 학교에서 내는 숙제라면 이처럼 열심히 조사하고 관심 갖기는 힘들겠지요. 전날 밤에도 잠 못 이루며 자기방과 거실을 왔다 갔다 하다가 겨우 잠이 드는 모습을 보며, 학교에서 자주 우리 아이들에게 기대와 꿈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을 가져봅니다.

지난해 입학당시만 해도 입학생 5명으로 합반수업위기와 분교로 가야할지도 모른다는 소문 속에서도 작고 아름다운 자연 환경에 위치한 수입초등학교를 택한 이유는 교정에서 맘껏 뛰

노는 때 묻지 않은 아이들과 선생님들의 열정적인 교육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단출한 학생 수가 만들어내는 가족적인 분위기와 형, 누나들이 친동생처럼 챙겨주고 보살펴주는 모습들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차츰 줄어드는 학생 수로 인해 분교와 통폐합 이야기들로 학부모들이 초조해 있을 무렵, 선생님들께서 앞장서서 혁신학교 추진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들이 모아지고 혁신학교 준비를 위해 많은 노력과 시간을 아끼시지 않는 모습에 선생님들에 대한 존경과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혁신학교로 선정이 되면서 앞으로 학교교육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지겠구나하는 기대와 우려들이 교차되기도 했는데, 작은학교 혁신학교에 대한 좋은 정보를 가진 부모들에 의해 단 몇 개월 만에 전화 오는 학생 수가 급격히 늘어나다보니, 아이도 학교 갔다 오면 당혹해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자주 다투어 오는 아이를 보면서 걱정이 앞서기도 했습니다. 작은 교실에 더 이상 학생 수가 늘어나면 안 되는데 기존의 우리아이들이 오히려 소외감을 느끼면 어쩌나하는 우려도 되었지만, 서로 잘 어울리고 보살피는 아이들을 보면서 좋게 변화하는 과정이라 생각되었습니다.

혁신학교로 바뀌면서 수업도 블록형태로 40분에서 80분이라는 긴 시간으로 바뀌었는데 40분도 제대로 앉아있기 힘든 아이들이 80분 수업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아마 철관식 수업으로만 이루어진다면 무지 지루하

고 딱딱한 수업일 테지만, 2학년인 저희 아이만 해도 한 가지 주제를 모둠별로 서로 토의하고 의견을 모아가는 충분한 시간이었으며, 만들거나 그림그리기를 완성할 수 있는 성취감이 있어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80분 수업 후 30분이라는 긴 쉬는 시간은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살것 뛰놀 수 있는 기쁨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학교 수업내용과 연계해서 한 달에 한 번쯤 이루어지는 현장학습과 자연생태학교 체험은 시간적, 경제적으로 직접 체험시켜주지 못하는 부모들의 부담감을 해소시켜 주었습니다. 또한 한 학기당 일주일간의 계절학교 수업은 아이들이 관심 있는 분야를 선택해서 외부강사들과 수업함으로써 또 다른 경험을 할 수 있었고, 계절학교 마지막 날에는 전교생이 만든 작품들을 전시하고, 2학기에는 공연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들을 선택해서 무드리 축제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우리아이들이 훌륭하게 공연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의 무한한 능력을 드러내게 하는 학교교육의 참 모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에게도 부모교육에 대한 기회도 주셨는데 한 학기에 두 번 있는 학부모교육연수는 도심과 달리 시골에서는 여간상 좀처럼 들을 수 없는 강의였습니다.

학교 앞 넓은 북한강이 보이고 학교 뒤 울창한 숲이 병풍처럼 펼쳐진 아름다운 학교운동장에서 맘껏 뛰놀며 체험학습을 통해서 쑥쑥 커가는 아이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벅칩니다. 아침이 되면 오늘은 학교에서 무얼 할까 즐거운 고민에 빠지는 아이의 얼굴을 떠올려 봅니다.

문정인(2학년 학부모)

## 요즘 난 수입초등학교 덕에 웃는다



사진 = 수입초등학교 제공

"엄마! 좀 있으면 또 겨울방학이지?"  
"어, 왜? 벌써 가을 방학이 기다려져?"  
"아니 겨울방학하면 학교에 갈 수 없잖아! 우리 학교는 방학이 없으면 좋겠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초등학교 할 수 있는 대화였던가? 불과 1년 전만 해도 중·고등학교는 3학년이면 졸업인데 왜 초등학교는 6년이나 다녔냐 하나고 빨리 학교 안 다니도 되는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해서 나를 당혹케 하던 아이였다. 도대체 무엇이 이토록 학교와 진한 연애를 하는 아이로 만들었을까? 그 1년 전 아이는 반 학생 수가 35명이나 되고 전교생이 1500명가량 되는 학교에 억지로 다녀 학교만 다녀왔을 뿐인데도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그래도 큰 사고 없이 무난히 학교를 다니는 평범한 아이였다. 어느 아이들과 같이 방학을 몹시도 기다리는 …….

2009년 11월 21일, 수입초등학교에 전학 가 첫 등교를 하던 날 '학교를 좋아할까? 괜한 것을 해서 아이만 더 힘들지 않을 까?'하는 내 부질없는 걱정을 단번에 날려 버릴 요량이었을까? 학교가 끝나자마자 나에게 달려와 안기며 흥분된 어조로 던진

첫 마디가 "엄마! 나무에서 소리가 나. 나무에 청진기를 대고 들어 보니까 막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려 정말 신기해"라는 소리였다. 전에 다니던 학교 선생님께서는 학년 주임을 맡고 계신 터라 너무 바빠서 체육시간에도 교실에서 톱과 재를 보고 왔으며 이젠 만화영화도 재미없어졌다고 투덜대던 아이였다. 그런데 체육시간도 아닌 수업시간에 밖으로 뛰어나가 나무와 얘기를 하고 왔으며 자기가 직접 지어준 이름을 가진 자기 나무가 생겼다고 즐거워하는 아이를 보며 어찌나 기쁘던지. 쿵노래를 흥얼거리며 '다행이다. 정말 잘했다.' 계속 혼잣말을 하게 되곤 한다. 매때마다 계절학교며 바다학교, 별자리학교, 선생님들께서 밤잠을 설치며 준비한 작은 것에도 의미를 담고 소중히 할 줄 아는 아이로 만들어 주는 여러 가지 활동들. 전에 다니던 학교에서는 별 재주가 없어 발표회 때에도 늘 구경꾼으로 제 역할을 톡톡히 하던 아이가 이젠 거의 모든 프로그램의 주인공이 되어 무대를 장악하고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 사고들이 제 일인 듯 해결하려 하고, 참여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아이가 되었다.

바뀐 것은 아이만이 아니다. 학부모 락밴드에 참여하고 있는 남편은 이제야 자신이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 아이처럼 좋아하고, 학교에 작은 일 맡아 하고 있는 나는 '제상에 이런 선생님들이 계시구나!' 선생님들과 편한 수다를 즐기며 학교 문턱이 이렇게 낮았나?하며 너무 편안한 학교에 어리둥절해 하기도 한다.

얼마 전 경기도 혁신학교 학부모 간담회에 다녀왔는데 예전에 우리 부부라면 '맛이 잘못된 교육을 바로 잡으려면 이런 모임이 꼭 필요해'하며 좌파적 기질을 드러내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현 교육체제를 비난하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미추알고주말' 말했을 것이다. 그 간담회는 학부모가 제대로 된 자격을 갖추고 올바른 교육을 만들어 보자는 현 시대에 꼭 필요한 귀한

자리였다. 그런 자리에서 나는 이런 말을 했다. "지금 저희 학교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위한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 가며 너무 아름다운 합창을 부르고 계신 듯합니다. 왜 꼭 학부모와 선생님이 동등한 자격을 가져야 하죠? 저는 우리 학교 선생님들을 너무나 신뢰합니다. 너무나 존경합니다. 어느 때는 늘 고군분투하시는 선생님들을 보면 너무 좌초당하기도 합니다. 굳이 제가 도끼눈을 뜨고 바라볼 필요도 없이 스스로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어 주고 계십니다. 이 교육현실에 우리 학교 선생님들 같은 분들만 계시면 아마 이런 모임은 필요 없을 겁니다. 이렇게 배우른 소리를 할 수 있게 해주신 우리 선생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들 우리 부부를 너무 부러워하는 눈빛이었다. 부부싸움 대부분의 원인이 아이이고 나도 내 아이를 위해서라면 불 속이라도 뛰어 들어갈 수 있을 만큼 내 아이의 행복이 너무나 절실하고 중요하다.

수입초등학교를 다니는 우리 아이에게 아주 가끔 장난스런 질문을 한다.

"예전 학교로 다시 가면 친구들도 많고 학교도 더 커서 좋지 않을까?"

그런 질문에 필적필적 뛰며 농담이라도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하는 아이를 보며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고 확인하고 자화자찬을 한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살짜 도시 뽕새가 나는 이곳의 많은 아이들 속에서 내 아이를 찾기는 그리 어렵지 않다. 여름이 지난 지 한참인 지금도 제법 까맣게 얼굴을 그을린 때 묻지 않은 듯한 시골스런 아이를 찾으면 된다. 그런 행복한 훈장을 가진 아이를 찾으면 된다. 내 아이 맑은누리는 지금 수입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다. 맑은누리가 웃는다. 맑은누리를 보며 나도 웃고 남편도 웃는다. 우리가족 모두가 웃는다.

최진영(3학년 학부모)

## 너무 짧은 시간이 남았어요

서울에서 작년 11월에 이 곳 양평으로 와서 많이 놀랐습니다. 친구들과 선생님들께서도 다 가족 같고 자연과 벗 삼아 공부하고 놀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 봄에는 진달래를 따 꿀을 먹거나 꽃놀이를 하고, 여름에는 학교 앞 냇가 수업전에서 친구들과 놀고, 가을에는 단풍놀이를 하거나 밤을 까먹고, 겨울엔 학교에서 전교생 눈싸움을 하거나 강에서 하는 빙판운동회를 합니다. 작년 겨울에 처음 시작한 빙판운동회는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서울에선 꿈도 못 꿀 일이지. 매일 학교가 끝나면 학원으로 가야 하는 것이 장상이니까요. 그리고 현장학습과 여행도 많이 갑니다. 그냥 논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백문이불여일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 공부할 때 도움이 되고 오히려 체험을 하고 교습을 해서 더 기억에 남는 것입니다. 특히 전교생이 울릉도에 갔을 때는 배편미를 해가면서도 후회 없는 맑은 풍경을 보았습니다. 이 때 처음으로 하늘과 바다의 경계선이 없다는 표현을 처음 써 보았습니다. 그리고 에메랄드빛 바다와 크레파스 색에 있는 하늘색, 그리고 처음 먹어본 흑포도 너무나도 기억에 남습니다. 평생 못 가 볼 수도 있는 곳을 초등학교 때 갔다는 것이 뿌듯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갔던 세종천문대에서는 처음으로 전문적인 천체관측기구로 별을 관측했습니다. E.T성단과 목성, 목성의 위성, 그리고 베가 등 여러 별들과 성단, 그리고 낮에는 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해에 있는 흑점도 망원경으로 보았습니다.

선생님들은 공부를 색다르게 가르칩니다. 높이뛰거나 씨름 같은 것도 하고 몸을 많이 움직일 수 있는 놀이를 배워서 하기도 합니다. 사회도 교과서로 하기도 하지만 골든벨이나 서로 역할을 분담해서 조사해 발표하는 식으로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서울은 아주 좋은 선생님이 아닌 이상, 모두가 교과서로 하는 따분한 수업을 하기 일쑤지만, 이곳은 모든 학생들이 재미있게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블록타임제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예전처럼 집중을 하려고만 하면 수업이 끝나는 경우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만 갔다 오면 끝나는 쉬는 시간이 축구 한 게임이라도 할 수 있는 넉넉한 30분으로 되어 충분히 놀고 싶은 만큼 놀 수 있어서 좋습니다.

봄과 가을에 하는 계절학교는 봄에는 주로 만들기를 하고 가을에는 삼삼오오 모여서 공연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무드리 축제에서 일주일 동안 연습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지식시장은 각자의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올해

는 늦봄과 겨울에 했는데 늦봄에는 학부모님들께서 오셔서 음식 만들거나 일본어 등을 알려주셨고 겨울에는 학생들이 직접 친구들을 가르칠 예정입니다. 겨울에는 스קי캠프를 가는데 6학년 친구들은 친구들과의 마지막 여행을 하며 추억을 만들고 다른 학년 학생들은 저마다 값진 이야기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수입초등학교는 전 세계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좋은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좋은 학교를 너무 짧은 기간 다닌다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문도연(학생/6학년)



사진 = 수입초등학교 제공

▶10면으로 이어집니다



# 초등 방과후‘돌봄교실’ 아이들도 만족할까요?

## 일-가정 양립과 돌봄교실

딸 아이가 1학년에 입학했다. 3월 한 달 11시에 끝나는 아이를 어디에 맡기고, 점심은 어떻게 먹이느냐가 일하는 대한민국 엄마들이 겪는 고민 가운데 하나다. 어린이집은 오히려 7시 30분까지 봐주는데 학교는 11시에 달랑 끝난다니 정말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하는 학부모들도 있다. 학교가 3월부터 급식을 해주면 좋으려만, 초등 1학년 새내기들 밥 먹이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다. 김치는 갖가지로 안 가져가고, 토마토 먹다 우웬, 생선가시가 목에 걸리기도 하고, 고기는 이빨이 없어 씹기 힘들다. 이런 엄마들과 교사들의 고민을 단번에 해결해 준 것이 돌봄교실이다.

저소득층 아이들을 사회적으로 케어하고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부터 늘어난 돌봄교실이 올해 대대적으로 늘어났다. 말이 좋아 일-가정 양립이지 노동도 하고 가사와 육아도 해야 하는 게 여성들의 상황이다. 질 좋은 일자리가 마련되기보다 장시간 저임금 돌봄노동, 감정노동, 단순노동을 해야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한마디로 저렴한 비정규직으로 전락하여 가정과 사회를 모두 책임져야 하는 거나 다름없다. 그래도 우리나라 여성들의 경제활동 비율은 50%를 넘지 못한다.

나도 올해 ‘취학전 교육’을 어린이집에서 하고 나서 엄마들한테 돌봄교실을 입이 닳도록 칭찬한 결과 우리 애 출신 어린이집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돌봄교실에 들어왔다. 입학식이 끝난 다음 날부터 2시간 수업이 끝나자마자 아이들은 돌봄교실로 갔다. 이 얼마나 환상인가? 선생님들이 숙제도 봐주고 놀이도 하고 또 점심밥도 먹여준다니! 4시부터부터 사설학원에 갈 아이들은 빠져 나가면 되고, 케어 시간을 연장하고 싶으면 5만5천 원에서 돈을 더 내면 8시까지

돌봐준다. 안전한 학교에서 그것도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선생님들이 다양한 활동으로 교육과 보육을 통합해준다니 정말 좋지 아니한가?

## 엄마, 돌봄교실 끊어 줘~

우리 반 어떤 아이는 3월부터 거기 가는 게 싫다고, 집에 가고 싶다고 절절 찼다. 딸 아이는 3월에 좀 잘 다니는가 싶더니 4월 조금 넘어가자 “엄마 돌봄교실 안 갈래” 한다. 그래도 교실이나 학교에 애가 어슬렁거리면 일을 못할 것 같아서 “네가 거기 안 가면 엄마 일 못한다”고 살살 구슬렸다. 그리고는 1시간 정도 늦게 보내거나 했다. 그런데 5월경부터는 눈에 띄게 돌봄교실에 안 가려고 했다. 이유는 우리 반은 놀이 시간이 없다는 거다. 방과후에 클레이와 컴퓨터 수업을 하는데 그 시간에 아이들이 놀이방에 갔다 와서 자기는 못 간다는 거다. 그래서 일주일에 1-2번 정도는 돌봄교실을 안 보내고 놀이터에서 놀거나 학교 도서관을 보냈다.

그런데 6-7월부터는 돌봄교실을 아예 끊어 달라고 성화다. 몇 가지 이유를 더 들었는데 “만날 공부만 하고 쉬는 시간이 없다는 거다. 학교 놀이터를 코앞에 두고도 마음대로 가지도 못하고, 도서관에서 권장도서를 빌리려고 하면 4시가 넘어 대출 마감 시간이 된다는 거다. 도서관 선생님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의를 했으나 돌봄교실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땀족한 수가 보이지 않았다. 우리 반에서 돌봄교실을 보내는 학부모님들 과도 도서관 이용 문제를 이야기해 보았으나 마찬가지로 푸념(기껏 반납하려고 무겁게 들고 왔는데 도서관 대출 마감으로 연체되는 경우도 있다고)이었다. 그래도 “엄마는 연수나 출장도 가야 하고 회의도 해야 하는데 여름방학 때까지 참 아껴봐”하며 설득했다. 그리고 여름방학 때에는 내가 연수에 갈 때에만

머칠 말하기만 했다.

## 돌봄교실에 대한 점검 필요

돌봄교실을 두고 아이와 별인 씨름을 2학기가 되니 다른 어머님들도 공감하기 시작했다. 물론 초기에는 적응 못했지만 서서히 어른이 데리러 올 때까지는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잘 다니는 아이도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아이들은 거기서 하는 숙제나 활동들을 좋아한다. 적응이 안 되는 아이들의 공통점을 보니 ‘활동적이고 외향적인 성격’을 가진 아이들이었다. 이 학생들은 돌봄교실에 가지 않으려고 수업이 끝나고 운동장을 어슬렁거리거나 놀이터를 선망의 눈길로 바라본다. 우리 애처럼 돌봄교실을 과감하게 끊을 수 없는 처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 어머님들에게는 1주일에 하루 안 가는 날을 권해 드렸다. 그랬더니 3명 아이들은 지희들끼리 어울려서 놀이터나 운동장에서 놀거나 도서관에 가기도 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 아슬사슬 운영된 돌봄교실이 어떠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에 대한 학부모들의 심도 깊은 의견이나(학부모님들의 만족도는 실제로도 매우 높다) 실제로 거기서 만나절을 보내야 하는 아이들은 꽤 많은 것인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이는 돌봄교실 선생님들이 교육을 못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어떤 아이들은 1-3학년이 모여 있는 돌봄교실에서 교실 수업과 비슷한 수업을 들어야 하고, 단체생활을 해야 하고, 다양한 활동을 다 마쳐야 하는 부담과 스트레스를 못 견디는 것이다. 10살 이하의 아이들이 하루 종일 규율이 강한 학교 교실에서 버텨야 한다는 것은 어쩌면 아이들 입장에서 ‘돌봄’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조진희(서울 영일초 교사 / 초등 1학년 학부모)

# 누구나 할 수 있는 참여예산 참여예산의 전망과 과제

## 내년도 서울교육재정의 특징

곽노현 서울교육감은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여 11월 10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친환경무상급식, 중학교 3학년부터 학교운영지원비 폐지, 전문계고교생부터 무상교육, 초·중학생의 학습준비비 비용의 학교 부담 등입니다. 모든 초·중학교 도서관에 사서가 배치되고, 200개 학교에서 학생의 문화예술체육 활동에 1,500만 원씩 예산을 사용합니다. 학교운영비가 학교마다 평균 2,680만 원씩 증가하여 학교의 예산 재량권이 강화됩니다. 내년은 헌법으로 약속했던 우리 국민의 바람인 무상의무교육이 본격화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이명박정부 들어 교육재정 증가율은 노무현정부에 비해 5%나 낮아졌습니다. 내년도에도 정부와 서울시가 서울교육에 투자하는 재정은 불과 350억 원 증가합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자체 재정혁신으로 내년 예산을 3천억 원이나 늘렸습니다.

재정 혁신, 시민의 요구 반영, 공약 이행 등 좀처럼 실현되기 어려웠던 예산안 편성이 가능해진 원인은 무엇일까요? 첫째, 사상 최초의 직선교육감 시대 개막, 둘째, 보편 복지인가 개발인가를 둘러싼 사상 최초의 정책선거, 셋째, 민주진보교육감들의 당선과 높은 지지율 유지가 기본적인 여건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참여예산 도입이 이런 여건을 살리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습니다. 11번 열린 설명회에 2천 명 넘는 시민들이 참석했습니다. 설문조사에 무려 1만 4천 명의 시민이 답했습니다. 특히 7천 명이나 되는 시민이 서울형으로 자신의 의견을 밝힌 것은 인상적이었습니다. 교육화랑네트워크는 스스로 참여예산도론회를 열고 의견을 모아 교육청들에 제출했습니다. 교육청의 참여예산추진단은 시민 의견 하나라도 더 반영하려고 매일 밤 늦은 시간까지 진지하게 논의했습니다. 서울교육재정을 혁신하는데 이런 과정이 곽노현 교육감에게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 참여예산이란?

참여예산은 “보통의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민주주의적인 예산과정”입니다. 전문가가 아닌 보통의 주민 누구나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소수 기득권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관철하여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제도입니다.

참여예산은 21년의 역사를 가진 현대민주주의 제도입니다. 1989년 브라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은 미국·캐나다·남미·유럽·일본·한국 등 세계 곳곳에서 운영 중입니다. ‘참여예산’은 정부와 지자체의 책무성·투명성을 높여, 공공과 시민 사이의 신뢰를 향상하여,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때문에 국제연합, 경제협력개발기구,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들이 권장하는 세계표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 광주광역시 북구청이 처음으로 도입하여, 많은 지자체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자치단체에서는 작년에도 강상관 경기도교육감이 처음으로 도입했습니다. 회한한 것은 서울에서 참여예산이 도입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는 사실입니다.

## 참여예산에 대한 몇 가지 오해

참여예산은 직접민주주의 과정이다?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1,200곳 넘는 정부·지자체가 참여예산을 운영하고 있는데 모두 대의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과정입니다. 어디서나 예산의 편

성권과 결정권은 주민대표인 의회·자치단체장에게 있습니다. 주민대표들이 결정하되, 소수 의견이 아니라 많은 주민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는 과정입니다.

참여예산은 진보진영의 것이다? 아닙니다. 이미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광주전남, 대구경북에서 적극적입니다. 좌우가 아니라 현대민주주의의 공통의 의제입니다.

참여예산에서도 전문가 역할이 중요하다? 아닙니다. 가장 먼저 참여예산을 시작한 포르투갈레그리이션 10년 만에 학교가 4배로 증가했습니다. 상하수도 없던 가정이 25%에서 2%로 줄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전문가가 아니라 많은 시민이 참여할 때 이루어집니다. 다수가 참여하는 순간, 도덕적 해이는 발붙일 곳이 사라집니다. 포르투갈레그리 시민 가운데 중학교 입학도 못해본 사람이 절반을 넘습니다.

## 참여예산의 전망과 과제

교육재정에서 참여예산이 정착되려면 얼마나 걸릴까? 10년쯤 걸릴 것 같습니다. 참여예산은 민주주의문화를 현대화시키는 과정입니다. 제도적 민주주의는 23년 전인 87체제를 통해 완성되었지만, 학교 체벌금지도 지금도 논란 중입니다.

참여예산 과정에서 역할을 하려는 시민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예산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되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벌 수 있는 의지, 모르는 건 물어보는 용기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정말 중요한 건 성찰적 태도입니다. 예산과정은 상충하는 이익을 조정하는 제로섬(zero sum)게임입니다. “한정된 재정을 어떻게 나눠야 다수의 시민이 만족할까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 정치과정입니다. 나의 관심사에 대한 지식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민주적 토론 능력, 타인의 관심사에 대한 이해, 다수에 대한 승복, 소수에 대한 배려, 합의결과에 대한 존중이 필요합니다. 내가 정말 민주시민으로서의 태도를 갖췄는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합니다.

##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우선 12월까지의 시도의회의 예산심의과정을 살펴보면, 우리 지역의 시도의원에게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들이 다리 놓고, 길 만드는 예산만 늘린 이유는 국민들이 이런 것만 알아왔기 때문입니다. 다수의 후원자가 교육과 복지 재정을 늘리고 잘 쓰는데 관심

이 있다는 것을 직접 확인할 때, 의원들도 자신 있게 전시장 예산을 줄이고 국민이 원하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둘째, 내년 2월 전에는 학교예산 편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학교마다 증가한 2,680만 원의 재량예산을 어디에 쓰는 것이 학교 실정에 맞을지를 판단하고 교장과 학교운영위원들에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의회·정부·지자체에 참여예산을 요구하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다른 지역의 모범사례를 내가 사는 동네에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좋은 제도를 처음 주장하는 사람은 전문가이고, 처음 도입하는 사람은 정치인이지만, 성공시키는 것은 시민입니다.”

김현국  
(사)정책연구소 미래와균형 연구소장



## 참교육학부모회

## 제주 산지 직거래 감귤 판매

참교육학부모회 부족한 재정마련 사업의 일환으로 제주 서귀포에서 생산한 저농약 제주감귤을 산지직거래로 판매합니다. 감귤 품종은 조생으로 단맛이 좋고, 껍을 수확하여 바로 포장하기 때문에 싱싱해서 오래두고 드실 수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가장 맛있는 귤이 생산되는 중문지역의 감귤입니다. 연말연시 주위 분들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많이 주문해주세요^^

판매금액 | 2만원(10kg, 택배비 포함)  
수 량 | 500박스  
기 간 | 11월 20일(토)~ 소진시까지  
입금계좌 | 농협 178534-52-052500 정향숙



제주 서귀포 감귤 농장 실제 사진

감귤  
주문하기

참교육  
학부모회  
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 2011년 겨울방학 서울 배낭여행 모집

일반적으로 여행을 가면 계획 치나기는 풍경을 보거나, 부모님과 편하게 목적지를 구경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지요. 같은 길을 가더라도 누구와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 보는 것 느끼는 것이 달라지지요. 모르는 길은 물어서 찾아다니며 지리철도 스스로 타 보고, 유적지에 가서 역사 공부도 하고, 서울에서 유명한 음식점에 가서 직접 돈을 내고 음식을 사 먹기도 합니다. 밤에는 서울타워를 찾아가서 우리가 사는 지방에서는 볼 수 없는 화려한 서울 밤풍경을 보고, 해화동에서 연극도 봅니다. 그러다보면 다리로 아프고 집 생각도 날겁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지요. 편하고 쉬운 건 금방 잊혀지지만, 내가 직접 몸으로 경험한 것은 두고두고 소중한 추억이 된답니다.

때	2010년 12월 27일(월)~29일(수) 초등학생 3~6학년 14명
드는 값	이십구만 원(290,000원) 경남은행 : 501-22-0263153 굴렁쇠 (용돈은 가지고 올 필요가 없습니다)
첫째 날	일양역 (고속철도) → 점심 (거지 안에서) → 대견역 도착, 수완역 → 수원 화성 → 신당동 떡볶이타운 → 서울타워 → 숙소 (수원 화성을 찾아 우리나라의 성과와 정조대왕에 얽힌 역사 공부를 합니다)
둘째 날	청계광장 → 국립중앙박물관 → 창덕궁 → 서울 학생과학관 → 인사동 인사 아트 센터 → 해화동 연극 관람 → 숙소 (창덕궁에서 우리나라 궁궐 정원의 아름다움과 경복궁의 조선 정치에 대해 배웁니다)
셋째 날	서대문형무소 → 경복궁 → 국립민속박물관 → 저녁 7시 40분 청원 도착 (서울에서 보고 느꼈던 생각을 정리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집니다)

## 2011년 겨울방학 일본 간사이 배낭여행 모집

체합학습 굴렁쇠에서는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4박 5일 동안 간사이 배낭여행을 떠납니다. 일본의 문화와 일본 문화의 뿌리가 되었던 간사이, 우리 문화를 견주어보면서 기쁘고도 먼 나라 일본과 우리나라를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또한 스스로 체험하는 배낭여행에서 뿌듯함을 느낄 것입니다.

때	2011년 1월 10일(월)~14일(금)~4박 5일
참가 할 수 있는 사람	초등학교 4학년 이상, 15명(중학생, 고등학교 모집 중)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http://www.gnhak.or.kr>

전화문의: 굴렁쇠아저씨 한중권(전 경남지부장) 010-7769-1188

# 친구들과 굴렁쇠 아저씨와 함께하는 겨울방학 여행!!



## 누구나 예외 없이 존중받아야 할 인권 인권의 보편성, 상호의존성, 자기결정권



인권의 보편성이란 어떤 사람이 처한 조건이나 지역, 능력, 나이, 성적 지향, 직업, 과거 전력 등에 관계없이 '권리'를 누리도록 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래서 인권은 반차별과 평등이 또 하나의 속성이 다. 나이가 많거나 어리다고,

장애가 있다고, 학력이 높거나

나 낮다고, 성적(性的)지향이 다르다는 등의 이유로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차별일 뿐 아니라 인권의 보편성을 훼손하는 행위이다. 한번예외조항을 만들면 그 후로는 누구나 어떤 근거를 내세워 인권을 빼앗는 근거를 만들기 쉬워진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거나 혼동하는 하나가 인권을 그 저작한 마음, 사람에 대한 예의바름'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나 단지 착한 마음만 있다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가 되지는 않는다.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란 타인에 대한 인권 존중 뿐 아니라 개개인이 인권을 누릴 수 있도록 법제도가 있을 때 가능하다. 그래서 인권의 목록에는 국가가 개인의 신체나 표현의 자유, 사생활을 침해할 수 없다는 '자유권적 권리'만이 있는 게 아니라 인간다운 최소한의 생활을 사회가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사회권적 권리가 있다.

건강권, 노동권, 주거권, 교육권, 문화권 등이다. 개인이 병에 걸리지 않도록 위생적인 환경을 만들고 질병에 걸리면 쉽고 저렴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강권'이다. 이를 위해 국가는 보건의료제도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며, 돈이 없거나 시골에 산다는 이유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의료비용이 높거나 특정 집단이 비위생적인 환경에 둘러싸여 있다면 이는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한 것이다.

정부가 의도했는가 안 했는가 중요하지 않다. 국가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에게 '부작위'의 책임이 있으며, 국가가 적극적으로 행한 정책이 인권침해를 일으킨 경우 '작위'의 책임이 있다. 국제인권담론과 제도에서는 인권보장 책무가 국가에게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를 바꾸고 사회적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유권적 권리인 의사표현이나 정책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그래서 인권보장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 정부를 비판하고 정책을 바꿀 수 있다.

교육권도 마찬가지이다. 작년에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학교간의 불필요한 경쟁과 고등교육에서의 학습기회를 제한하는 일제고사 체제의 재평가"를 한국정부에 요청했다. 보통 교육권의 핵심 평가항목은 교육의 혜택을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나눠주는 제도를 만들고 재정을 쓰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한국은 입시위주의 교육제도로 인해 공교육이 파괴되고, 학부모들이 고비용을 지불해야 할 뿐 아니라 학생들은 과도한 학습노동에 시달린다.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온전한 교육에 대한 권리를 누리고 있지 못한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가끔 나이 드신 분들이 "옛날에는 돈이 없어 교육을 못 받았는데 이제 공부시켜주는데 뭐 그리 투덜대고 있냐, 배부른 소리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는 교육을 인권으로서 보지 못하는 시각이다. 다시 말해 인권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자기결정권을 간과한 것이다. 자기 의사에 반하는 강제는 인권과 어긋난다.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사회제도가 그렇게 굳혀있으면 벗어날 수 없다. 학습선택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고, 이러한 교육제도에 대해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의견 표현을 하는 것이 자유롭지 않다면 교육권을 온전히 실현하기 어렵다.

이렇듯 모든 사람이 인권을 차별 없이 누리기 위해서 국가는 재정적 노력만이 아니라 차별에 대한 인식, 자기결정권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권리를 누려야 하는 당사자들인 학생, 교사, 학부모가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명숙(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 체벌 금지 이후 아이들은 행복한가!



지난 11월 1일 서울 지역의 전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체벌이 금지되었다. 학교 생활규정 중에 체벌에 관한 항목이 사라지고 대신에 성찰학교와 상벌점제 운영을 중심으로 하는 대안이 자리 잡게 되었다. 체벌 금지로 수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생활지도가 어렵다

는 현장의 반응이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도배를 하였지만 이 조치로 인하여 학교가 무너지거나 교권이 근본적으로 위협받는 일들은 실제 벌어지지 않았다. 어쨌든 교육청의 지시에 의한 행정조치의 효력으로 교사들이 다양한 목적으로 지니고 다니던 '사랑'의 매가 많이 사라진 대신에 학생부와 상담실에 아이들이 북적거리는 경우가 늘어나게 되었다.

진보 교육감을 표방하면서 체벌 금지 조치를 상명하달식으로 추진하는 방식에 대한 굵지 않은 여론과 철저한 준비 없이 졸속적으로 추진하였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체벌에 의존하는 교육이 아닌 교사와 학생의 인격적 만남에 의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방향은 이 과정에서

대세로 자리 잡고 있다. 물론 체벌 없는 교육이라는 혁명적 변화를 이루어내기 위해 갖추어야 할 대목들이 적지 않다. 성찰교실을 만들어 놓고 담담할 인력도 갖추지 않았다는 비판이 거세지면서 부랴부랴 211개 학교에 전문상담원이 채용되었다. 하지만 서울 전체 학교의 30% 정도가 기존의 WEE CLASS(상담실)와 성찰교실에 상담교사나 전문상담원이 배치된 수준이고 실제 성찰교실을 만들 여력이 없는 학교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체벌이 교육 활동에 필요악이라는 근거로 작용하고 있는 과대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병행되어야 한다. 학생이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교사가 안내자와 조력자가 되는 교육이 이루어질 때, 교사의 일방적 강의식 수업과 일탈하는 학생들을 체벌로 통제하는 방식이 사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체벌 없는 교육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교육여건 개선과 함께 교사와 학부모의 학생권이 제정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사와 학부모들은 학생들을 자신들이 설정해 놓은 모범적인 태도와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대상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높은 편이다. 테두리를 벗어난 행동을 하는 경우에 받아들이기 어렵고 통제를 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학생들은 성장 과정에서

자신들의 욕구와 특성에 따라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잠재력을 발현하게 된다. 교사가 자신의 역할을 학생들이 변화하는 과정을 함께 하면서 안내하고 도와주는 것으로 자라매김 할 경우 체벌 대신 학생에게 맞는 교육 방법과 내용을 고민하고 준비하게 되는 것이다. '강의식 수업'과 '협력 학습 수업'은 형태의 차이뿐만 아니라 교사와 학생의 관계 정립 자체를 달리하는 것이다. 체벌을 만 나라의 전설처럼 여기는 편란드는 이러한 방식의 교육이 정착되어 있다.

또한 진정으로 체벌 없는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체벌 금지 이후 학생들은 과연 행복한 교육을 받고 있는가?'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학교와 교실에서 더욱 빈번해지고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급품 갈취 등 학생들 사이에서 일상화된 폭력과 왕따, 7시 등교시간에 맞추기 위해 졸린 눈을 비비며 밥 한 숟가락 제대로 먹지 못하고 허둥지둥 학교로 향해야 하는 아이들에게 체벌은 그들이 처한 폭력적인 교육 환경의 한 요소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체벌 없는 교육은 학생을 인격체로 섬기는 교육, 학생 중심 교육이 실현되기 위한 출발점일 뿐이다. 아이들이 행복한 질 높은 공교육이 이루어지는 진정한 진보 교육시대를 만들기 위한 과제들을 새롭게 정립하는 것이 이번 체벌 논쟁을 실천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

한만중(개포중학교 교사)

## ‘체벌없는 평화로운 학교만들기’

서울시교육청 정영철 장학사 인터뷰

11월 17일 오후 2시부터 한 시간에 걸쳐체벌관련 실무책임자인 서울시교육청 중등교육정책과 생활지도담당관실 정영철 장학사와 인터뷰를 하였다. 바쁜 가운데 시간을 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도움을 주신 박부희 상담실장과 강인수 활동가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문** 11월 1일부터 체벌 금지 제도가 시행되면서 며칠 지나지 않았음에도 언론은 물론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답** 체벌 문제가 언론에 집중 재조명되면서 학교가 약간 혼란에 빠졌다. 체벌을 극복하기 위한 생활지도는 10년 전부터 시작되었다. 그럼에도 대략 5% 정도 되는, 학교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학생들의 행동수정에는 한계가 있었다. 체벌이 어느 정도 줄어들기는 했지만 그 과정에서 일부 학부모들은 '학부모 소환'을 부담스러워하기도 했다. 미국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학부모를 불렀을 때 직장에 땀땀이 애기고 갈 수 있을 만큼 교육에서 학부모의 역할과 책임을 사회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생활조건과 문화의 차이로 인하여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체벌 문제를 풀기 위하여 학부모의 적극적 참여는 필요하고, 선생 혼자 감당하기에는 힘든 일이다. 더구나 그런 학생을 상당수가 가정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아서 학교가 모든 것을 책임지는 접근보다는 학부모와 사회까지 공감하고 개입해야 한다.

**문** 교육청이 준비한 대체 프로그램이라든가 단계별 대응조치의 현장 적합성과 실효성은 어느 정도인가?

**답** 매뉴얼을 만들면서 학교현장의 반응이 몹시 궁금했다. 그 동안의 형태에서 탈피한 생활지도를 하자는 것이다. 요즘 학생들은 10년 전과 전혀 다르다. 학생들 나름대로의 원인이 있기 때문에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시행조치에는 길게 보면서 시행해 갈 때 효과적일 것이다. 용의복장규정에 따라 짧은 치마 때문에 계속 벌점만 주다가는 그 문제 하나로 사회봉사를 넘어 '전학을 가야하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

다. 학생과 소통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찾는 과정도 아주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치맛단을 늘리기 위한 작은 찬을 제공할 수도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도 않고 '모피'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식으로 보도하는 언론도 우리의 오랜 체벌문화 극복을 위해 힘을 보태주어야 할 것이다. 교장과 교감의 역할도 중요하다. 학생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의 입장은 어떤지 살펴가며 학교 상황과 부합하는 방안을 학생들과 충분한 합의를 거쳐 선택하고 활용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생활평점제'만으로 문제를 풀어도 되고, '성찰교실'은 물론 '자치법정'까지 확대해 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적당한 때가 되면 그 성과에 대한 사례를 공모하고 새로운 대안을 찾는 등의 활동을 펼침으로써 효율적 학교현장의 변화를 추구하여야 할 것이다.

**문** 세세한 부분까지 벌점제로 규정하다보면 교사와 학생간의 관계가 건조해지지 않을까?

**답** 복도에서 잠깐 뛰었다든지 교복에 벨트를 안 했을 때 확실히 벌점을 부과하면 그럴 것이다. 그러나 학교는 학교대로 어려움이 있다. 어디로 뿔지 모르는 학생들에겐 너무나 좁은 공간인 학교에서 언제 안전사고가 발생할지 알 수 없으며, 학생들의 기본 생활습관 자체가 무너져 있어서 벌점제로 인해 사치비비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학교현장에 혼란이 많을 것이다. 일부 학교는 상벌점을 함께 시행함으로써 학생들이 자기관리를 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한다.

**문** 문제 해결 방안을 만드는 과정에 학생들의 참여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나?

**답** 대체로 모든 학생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공간이 학교에는 없다. 게다가 학생들이 자기 의사를 발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다. 보니 '인격적 자기관리'에 별 관심을 보이지 못한다. 그러나 토론을 활성화함으로써 학생들이 자신의 문제에 대한 주체적식을 가진다는 것은 교육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일일뿐만 아니라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의지를 키워줄 것이다. 따라서 전교생이 함께



모이지 못하고 자신의 의견을 직접 드러내지는 못한다. 할자리도 대의원화라든가 학생회 등 특정 장소에 모여 벌이는 논의 과정을 각 교실에서 생중계하면 좋을 것이다.

**문** 우리의 거친 학교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학급당 학생수라든가 선생님의 주당 수업시수 감축 등의 조치가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답** 물론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예산문제라든가 공무원 총정원제 등의 제약 때문에 쉽게 풀어나가기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이제까지 많지 않았던 생활지도나 상담에 대한 교사연수 기회를 확장함은 물론 직접 '찾아가는' 방법으로 전환하면서, 전문상담교사와의 소통이 일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애를 쓴다. 그리고 이 기회에 생활지도와 상담이 동시에 이뤄지는 체제로 우리의 생활지도 틀을 바꾸는 일도 필요할 것이다.

**문** 앞으로 일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답** 지금도 현장 모니터링을 수시로 하고 있다. 어려운 점과 문제점을 파악하면서, 변화의 결과를 신뢰성 있는 객관적 자료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여론도 아직 호의적이지만은 않고 시행초기인 것과 상당히 조심스럽다. 변화하는 해야 하지만 그 흐름은 느릴 수밖에 없으며, 사회적 비판과 우리 또한 새로운 대안과 대책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문** 끝으로 학부모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답** 학교가 많이 달라졌다. 민원을 받을 때도 "옛날엔 안 그랬는데..."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 군대에서도 없어졌는데 학교에 체벌이 남아 있다면 말이 안 된다. 이 문제에 대하여 학부모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 학교가 혼자서 풀어가기에는 한계가 있다. 국가와 사회의 뒷받침도 필요하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부모의 적극적 참여다. "도대체 학교에서 뭘 가르치길래 애가 이러냐?"고 말하면 더 이상 해법이 없다.

정리·송환웅(언론출판정보위원장)



##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청소년 인권 이야기

『인권은 대학 가서 누리고요?』 (김민아 지음, 펴낸 곳 : 플레마)

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 체벌금지 등 우리 청소년 인권과 관련된 이슈가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사실 우리들은 우리의 인권에 대해서 그 의미와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지 못하다. 현실과 동떨어진 추상적인 개념이나 인류의 역사적 쟁점 정도로 생각할 뿐이다. 그저 교복을 우리가 변형하여 입고 싶은 모양으로 좀 만들 수 있도록 해 준다든지, 머리를 떼어 따라 자유롭게 연출할 수 있도록 해 준다든지 다 바랄게 없다고 하는 수준이다. 행복은 성격순이 아니라고 아무리 외쳐도 그 말을 그대로 믿을 만한 자신도 없고, 이름만 '자율'뿐인 야간 '강제 자율학습'도 입학사정관제와 수시지원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학교추천서를 써 주지 않겠다는 공갈 앞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그런데 '오장풍'작권엔, 국가인권위원장의'잠둥이'발언 등을 언론 보도를 통하여 알게 되던 중 마침 이 책을 손에 넣게 되었다. 더구나 7여 년 간 국가인권위원회에 근무하며 수많은 청소년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 나아가 교육 관계자들과 만난 현장감을 바탕으로 우리 청소년 인권의 현주소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물론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꼭 알아야 할 청소년 인권의 의미와 내용에 대해 소개하는 책임을 알게 되어 열심히 재미있게 읽었다. 그토록 듣기 했던 '세계인권선언과 아동권리협약'을 처음으로 다 읽을 수 있었던 것도 다행이다.

나도 모르게 내용을 요약하여 보여주는 만화와 도표 그리고

사진 등을 먼저 보고나서 본문을 읽다보니 이해하기도 쉬웠다. 그리고 '아! 이런 일이 정말 있었는데...'란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구나하는 충격을 받으며 약간의 반성도 하게 되었다. 부록에 실려 있는 '우리 학교의 인권 온도는 몇 도인가?'를 직접 채점해 보고 그 점수에 정말 놀랐다. 과락수준이었다. 그런데 나는 별 불편을 느끼지 못하고 학교생활을 하고 있었으니 이걸 도대체 어떻게 봐야할지, 너무나 무안타가웠다.

다른 사람들의 반응도 궁금하여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마침 참교육학부모회 편집위원이시라는 이화정님의 "공부라는 모이를 강제로 먹고 성적이라는 달걀을 억지로 낳아야 하는 닭장 속의 닭이 되어버린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 책은 그들도 하늘을 자유롭게 날 수 있는 '새'라는 사실을 일깨워준다"는 글을 읽으며 '그래, 정말'하는 감탄사를 절로 쏟아내는 나 자신을 발견하였다.

강소영(고2)



## 거제지회

희망의 인문학 공부방이 역사 노동 문학 시리즈로 이어져 거제지회에서 도 참석했어요. 하종강 소장님의 '노동의 눈으로 바라본 세상'을 수강하고 나서 한 컷!



## 경기지부

11월 17일, 경기종합복지교육센터에서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출범식이 있었어요.



## 경남지부

경남도교육청 주최로 대안교육토론회가 23일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학업중단 학생 예방과 치유 방안 및 대책에 관해 논의했다.



## 경주지회

생태가을축제에 참여한 경주지회 회원들.



## 고양지회

풍물캠프로 고양유스호텔 다녀왔어요.



## 광양지회

들꽃배움터에서 아이들이 찰흙으로 만들기 하고 있어요.



## 마창진지회

11월 10일, 17일 창원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으로 '미디어를 통한 청소년 인성교육'이 마창진지회 주최로 열렸습니다.



## 목포지회

두레농원으로 배따기 체험 다녀왔어요.



## 부산지부

금성초등학교에서 2010 녹색 식생활체험교육을 진행했어요.



## 상주지회

백승희 회원님 댁에서 자연놀이 맘껏 하고 왔어요.



## 수원지회

11월9일, 수성과 폭력 사태 해결과 학생인권조례 제정 정착을 위한 기자회견 했습니다.



## 양주지회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과 간담회를 마치고 한 컷!



## 영암지회

11월 14일 곡성 샘골농원에서 사과 따기 체험도 하고 가을나들이 만끽하고 왔어요.



## 울산지부

지난 11월 3일, 울산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모임 발족했습니다.



## 인천지부

지난 11월 4일 인천시의회에서 교육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토론회가 노현경, 정수영 시의원 주최로 열렸어요.



## 정읍지회

11월 24일 민방위 교육장 앞에서 무상급식 서명을 받았어요.



## 진주시회

지난 13일 아버지모임에서 족구 한판 했어요.



## 파주지회

학생의 날 기념으로 교육문화연대 푸른물결 주최 적벽경기, 애심농장 유가공체험 다녀왔어요.



## 나주시회

참학의 이름으로 밥상의 기적을 느끼다

학부모신문에 연재하고 있는 이기영 교수님의 글을 읽고 '밥상머리교육'이라는 주제로 11월 17일 강좌를 했다. 요즘 우리 지회의 새로운 활력소 '아버지모임' 회원분들의 놀라운 참여율이 빛났다. 교수님의 '우리 밥상에 숨은 놀라운 힘과 교육적 의미'에 대한 열강과 마음에 스며드는 멋진 노래공연에 감격선물 이벤트까지. 그야말로 강의와 콘서트의 이중주였다. 나주에 꼭 다시 오고 싶으니 초청해 달라는 교수님의 말씀과 참여 부모님들의 열정어린 마음들에 나 또한 캔스레 흐뭇했고, 참 고마운 밥상을 받은 하루임이 틀림없었다. 박화명(나주시회 문화부장)



## 성동준비위

11월 9일 성동구립도서관 11분의 발기인으로 참교육학부모회 성동지회 창립준비위원회가 발족했습니다. 매달 학부모 강좌를 진행한 <성동교육화장샷> 모임으로 시작된 지 만년의 신뢰를 바탕으로 성동지역의 학부모들이 교육을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작은 시작이지만 참교육학부모회와 함께 커나가며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을 만드는데 함께 하겠습니다.





지부지회 소모임 - 거제지회

## 체험학습 소모임

2008년 3월 체험학습 지도자 프로그램을 거제지역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많은 학부모들이 신청하였지만 먼저 신청한 순서대로 20명의 학부모들과 함께 9강좌를 진행하였습니다.

학부모들에게 자기개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거제지역 아이들에게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체험학습프로그램을 만들어 주기위해 체험학습 지도자 과정 9강좌를 모두 마친 학부모들과 함께 체험학습 소모임을 구성하여 지금까지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참교육학부모회 인도 함께하는 회원이 되었지요. 지금은 6명이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함께 ‘궁궐의 우리 나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역사, 꽃, 풀, 우리 건축을 공부하고

아이들과 함께 야생화 탐사, 자연휴양림에서 여름캠프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을이 가기 전에 진주수목원 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제지역 아이들에게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기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 한 장의 전단지가 가져다준 인연

3년 전 우리 아이가 모 영어 학습지에서 실시하는 영어시험을 치르고 나오는데 학교 문 앞에서 어딘지 좀 없어 보이는 한 여인(현재 최양희 지회장)이 전단지를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또 학원 광고가니하고 시큰둥하게 한 장 받아 가방에 구겨 넣었습니다.

집에 와서 가방정리를 하다가 접힌 종이를 펴 보았습니다. 학원 광고가 아니라 학부모 대상으로 체험학습 지도자 과정을 개설한다는 안내문이었습니다. 총 9강의 내용이 모두 맘에 들었고 거제에는 체험학습을 진행하는 곳이 없어 안타까웠는데 참교육학부모회에서 체험학습프로그램을 만들고 진행하려고 하는 학부모들을 찾고 있다는 내용을 보고 바로 접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참교육학부모회 거제지회를 만나게 된 계

기가 되었고, 지금은 거제지회 운영위원장입니다.

체험학습 지도자 과정을 거치면서 거제 역사와 문화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참석한 학부모들도 거의 빠지지 않고 9강까지 재미있게 듣고 배우고 체험하였습니다. 과정을 마치고 화망하는 학부모들이 모여 계속 공부하여 아이들에게 거제지역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역사에 대해 정리를 하려고 해서 『한국사 편지15권』을 읽고 토론했으며, 봄에는 야생화 답사를 가서 진달래 화전을 아이들과 직접 구워먹고, 그동안 있느니 없는지도 몰랐던 겨울 기운이 남아있는 2,3월에도 아른아른 키 작은 야생화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산수유

와 생강나무를 구별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여름에는 자연휴양림에서 아이들과 하루 산나개 숲에서 놀기도 했습니다. 숲에서 놀다가 바다가 보고 싶으면 바다로 가서 시원한 파도와 함께 뒹굴고 놀니다. 그래서 도시에 사는 아이들보다 거제에 사는 아이들이 더 행복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 모임 해숙씨는 작년에 셋째를 낳아 이제는 셋째와 함께 소모임에 옵니다.

체험학습 소모임을 통해 그동안 무심코 지나친 나무, 풀, 꽃들이 하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 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음이 맑아집니다.

아직 준비해야 할 것들도 배워야 할 것들도 많습니다. 최혜숙, 하수연, 박형신, 장윤영, 최양희, 김진희 체험학습 소모임 사람들라 함께 차근차근 준비해가면서 아이들과 더 자주 함께 놀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도미영(거제지회 운영위원)

그러나 언제나 자유 끝엔 책임이 따르는 법, 책임을 다하기 위해 여러 부서로 나누어 활동하고 있다. 체육부는 체육창고 청소를, 급식부는 급식할 때 식판 정리와 수저 정리, 젓가락 정리를 하고, 도서부는 도서 정리를, 생활부는 학교 규칙을 지키나 보고 있다. 그리고 현장학습을 따로 가 자신이 배운 것을 익히는 시간이 되기도 한다.

학교 교육시스템이 발전됨에 따라 학교도 발전했는데 과학실 현대화, 화장실 준공, 스쿨버스 정류장, 유치원 교실, 도서실 확대, 엘리베이터 준공 등을 했다. 내년에는 실습실을 만든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이번 년도에는 주변 학교끼리 체육대회를 열기도 했다. 확실히 2009년부터 나은 2010년이 된 것 같다. 2009년에는 없던 새로운 활동들이 많이 생겨 후배들도 좋아하는 것 같이 다행이나 한편으로 후배들이 부럽다. 이러한 활동들을 더 많이 할 수 있으니까. 나는 우리 학교를 졸업하기가 싫어진다.

서정원(학생/6학년)

Q & A  
상담실



## 친했던 친구에게 왕따 당하는 우리 아이...

Q 중학교 1학년생인 딸아이가 학급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다. 원래 사귀의 폭이 넓지 않은 아이인데 가장 친하게 지내던 친구와 다툰 후에 그 아이가 돌아서서 다른 그룹에 들어가 우리 아이와 친할 때 서로 나눈 이야기들을 부풀려서 퍼뜨렸다고 한다.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들에 대해 안 좋게 말했던 내용을 들은 그 아이들이 우리 아이를 대놓고 따돌리기 시작한 것이다. 여러 아이들에게 공격받고 급기야 친하던 아이들까지도 돌아서는 바람에 외톨이가 되었다고 한다. 반 아이들 모두 우리 아이를 미워하고 따돌리는 상황이 되었고 아이들이 한마디씩 툭툭 던지는 말에 상처를 많이 받고 자내고 있다.

아이가 너무 힘들어해서 내가 답임을 만나 볼까 했더니 아이가 팔짝 뛰며 답임에게 말하면 학교에 안 다니겠다고 한다. 그전에 다른 아이의 엄마가 답임을 만나 문제 해결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이후 오히려 더 힘든 상황에 빠지게 된 일이 있다며 극구 말라는 것이다. 전화라도 하겠다고 했더니 전화만 해도 답임교사가 “000엄마가 전화 했더니, 왜 그런 전화가 오게 한 거야?”하고 얘기하는 바람에 아이들이 다

알게 되고 그 아이가 더 곤란해진 적도 있는 것이다. 절대 전화도 하지 말고 차라리 전학을 보내달라고 한다. 큰아이도 그 학교에 다니고 있고 이 아이를 전학시키기 위해 이사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니다.

아이는 자기가 잘못된 것도 없는데 이런 일을 당하는 건 너무 억울하다며 울기도 하다가 평소와 다른 아이들 뒷담화를 한 것은 자기 잘못이라며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 아이는 아빠나 언니가 이런 일을 알게 되는 것을 너무 싫어해서 나하고만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지만 언니와 아빠도 이 일을 알고 있고 함께 걱정하고 있긴 하지만 내색은 못하고 있다.

전학을 갈 형편도 안 되고 상대 아이들을 벌 줄 경우 보복이 두려워 왕따로 신고할 생각도 없고 단지 답임에게 전화해서 상황을 알리고 잘 지켜보아달라고 부탁하고 싶다.

A 아이가 참 힘든 일을 겪고 있군요. 아이가 그렇게 답임에게 알리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보아 답임교사가 이런 일을 잘 처리할 능력이 없거나 아이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의 의견도 무시하면 안

되겠지만 답임과 의논하지 않고는 해결하기 무척 힘듭니다. 그리고 친구들과의 관계는 복잡하고 예민한 문제이니 만큼 답임교사와 전화로 말씀을 나누는 것보다 직접 찾아가서 얘기를 나누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이가 걱정하는 부분을 이야기하시고 절대 반 아이들에게는 사실이 알려지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하시고 상황을 알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답임교사에 대한 아이의 신뢰가 그렇게 깊지 않은 것으로 보아 답임교사에게만 이 문제 해결을 전적으로 맡기는 것은 곤란하다고 봅니다. 우선은 가족들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아이가 자존심이 강해서인지 언니와 아빠에게도 알려지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하는데 아이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가족 간의 따뜻한 사랑과 믿음을 표현하도록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여행을 하거나 영화를 보거나 노래방을 가는 등 가족들과 좀 더 많은 시간과 경험을 가지다 보면 어떤 힘든 일을 당하더라도 가족이 있어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자랄 것입니다.

집단따돌림은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이지만 또 절대 계속해서 당하지는 않도록 해야 하



는 일입니다. 아이에게 심한 마음의 상처를 주기 때문이지요. 이미 받은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심리치료가 도움이 됩니다. 미술치료나 상담을 통해 마음속에 쌓인 분노를 다스려서 내면의 힘을 키운다면 그 전보다 오히려 더 당당한 아이로 성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인근에 있는 청소년 수련관이나 복지관에 가시면 청소년을 위한 미술치료, 상담 외에도 동아리 활동 등 여러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아이가 흥미 있어 하고 도움이 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학교 외에서의 활동을 통해서 더 다양한 활동과 인간관계를 가지면서 위축된 자존감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내 자신을 찾는 소중한 경험 학부모 상담원교육



했습니다. 그저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저도 그뻐 단지 그것만을 바라는 부모, 참부모였는데요. 어느새 아이가 걸음마를 떼고 자기 의사를 표현하고 또 어느새 학교에 들어가고, 2차 성징이 나오는 사춘기에 접어들자, 그때 참부모로서의 소박한 소망은 어디가고 소리치고 욱바지르고 하루하루 매 순간 순간 이젠스(?)들과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하루에 열두 번도 더 속상하고 서로의 눈에서 눈물이 핑 돌 정도로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그래도 따뜻한 마음, 그저 사는 게 다 그렇거나...; 저도 크면 부모의 마음을 알겠지... 하며 단념하고 또 체념하며 돌아서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는 동생을 통해 참교육학부모회에서 하는 상담원교육 프로그램을 소개받았습니다. 저처럼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라며 적극 권하였는데. 정말 자신도 도움을 많이 받았으며 권유하는 동생에게 매번 “부모 노릇하는데 무슨 교육이 필요해?”라며 별스럽지 않게 차부하다가 문득 그 동생을 새삼스레 바라보게 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성직, 적성, 진로 등 평범한 학부모의 고민을 넘어서 왕따에 학교폭력 등 저보다 더 많은 고민거리가 있는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충심을 잠은 모습이 제 눈에도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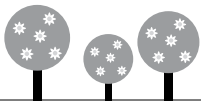
“내가 변했어. 아이가 아니라 니가 변한 것 같아.”

제 말에 상국이 미소를 자아보이는 그 동생의 변화가 진정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애 두 번, 1차 학부모 상담원교육을 한 달간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영천시장 맞은편 넓고 허름한 2층 작은 공간에서 시작한 학부모 상담원교육은 상담이란무엇인가로 첫 강의를 시작, 인권이란 무엇인가, 교육은 만남이다, 학생 인권, 인터넷 중독 예방과 대처, 진로상담, 청소년 심리특성, 학부모 상담사례, 그리고 에니어그램 순서로 착실히 진행되었습니다. 매 강의마다 먼 곳을 마다 않고 한길에 달려온 각 분야 전문가들의 열강도 열강이지만 강박, 강남을 비롯하여 파주, 인천, 수원……, 새벽밥을 지어놓고 달려와 이른 시간 그 자리에 자리한 학부모님들의 모습, 그 자체가 제겐 감동이자 조그만 충격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부모들이 참부모 노릇을 위해 고민하고 있구나, अन이하게 살아온 저 자신이 참으로 부끄러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자신을 찾아가는 여행이라는 에니어그램으로 끝맺은 이 교육과정을 통해 ‘결국 부모가 먼저 변화하 아이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는 거로구나, 나 자신을 바로 봐야 아이가 바로 보이고 나 자신을 끌어안아줄 때 아이를 안아줄 수 있는 부모가 되는 것이구나’ 제 자신을 찾는 소중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결국 저는 1차 기초교육에 이어 후속교육까지 신청해 교육받고 있습니다. 이참에 저 자신을 좀 더 알고 잘 단련시켜 조금이나마 나은 모습으로 제 아이들 앞에 서고 싶은 욕심에서요. 후속교육을 통해 제가 또 어떤 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지 벌써부터 설렙니다. .

장여진(14기 상담원교육 수강자)



▶ 3면에서 계속

## 우리 학교의 변화

우리 수입초등학교가 혁신학교가 되면서 여러 가지 변했는데 가장 크게 중점을 둔 것은 교육일 것이다. 1주일동안 특별한 활동만 하는 계절학교와 자신이 이루고 싶은 학교를 만드는 다모임, 자신이 아는 것을 남에게 가르쳐주는 지식시장,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키우는 특별활동, 작가와 직접 만나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작가와의 만남, 선후배 간의 정을 키우는 합동체육, 우정과 친근감을 높이는 바다학교와 별자리학교, 발전을 거듭하여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는 특기적성 등.

여러 가지 활동이 늘어나자 한때는 통폐합 설문까지 했던 전교생 63명의 작은 시골 학교에 사람들이 순식간에 늘어났다



## 아이들 건강을 위해 법으로 만든 ‘보건교과’, 학부모가 함께 지켜요!

#### 현정사상 최초, 입법으로 보건교과 신설

2007년 12월17일, 국회는 모든 학교에 보건교과 도입을 골자로 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공청회와 10여 차례의 첨예한 논쟁을 거친 뒤, 국회는 마침내 술한 이해관계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보건교과 도입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비만·성폭력·흡연등아이들의 건강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지금도 보건교육이 잘되고 있다거나,”교과 신설은 엄청난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하는 반대는 각종 실태조사와 정책연구로 힘을 잃을 수밖에 없었다. 이 입법 배경에는 보건교육포럼 등의 십여년의 운동과 강지원 변호사 등 각계 오피니언 및 여성 보건 청소년단체 등의 적극적인 지지가 있었다.

#### 국회의 법률은 필수교과,

#### 교과부 고시는 의무-선택 호호

이 법은 보건교과를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으로 개설하고, 보건교사가 이를 가르치며, 학교장과 정부가 이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원래 법의 원안에는 ‘보건교과를 설치하고’가 있었으나,

다른 교과가 모두 시행령에 있어 법체계상 맞지 않다는 교육부의 요청으로 보건교과는 도입하되 그 조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하였다. (국회기록)

그러나 법의 시행을 위해 만들어진 교육과학기술부 고시는 초등학교의 경우 제량시간으로, 중고등학교의 경우 선택과목으로 하도록 하면서, 현장에 혼란을 가져왔다. 이렇게 보건을 창의체험활동이나 선택과목으로 하는 한, 학교에 따라서는 보건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법률을 지킬 수 없으며, 유사시 학부모소송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 한국의 ‘바구니 교과’로서의

#### 보건선택과목 vs OECD각국의 보건 필수교과

2010년 10월, 서울교육청 국정감사장에서는 국회의원인 법률에서 정한 보건교과서를 80개밖에 사주지 않아서, 수업시간보다 바구니에 교과서를 담아 옮겨야 하는 ‘바구니 교과’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또한 언론에서는 2009년부터 모든 학교에서 17시간 이상 하던 보건수업을 내년부터 종교교에서 선택과목으로 하게 되면서, 20%의 학교만 보건을 선택하고 나머지

약80%이상의 학교가 법을 위반할 수 있다고 보도하였다.

이러한 정책부재는 미국, 핀란드, 영국 등 OECD주요 국가들이 보건을 필수교과로 운영하고 있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OECD 국가들은 보건교육이 학생들의 생활 뿐 아니라, 학업성취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연구특히 가난한 아이들의 경우 취약한 건강관리로 학업성취에 불평등을 확대할 수 있다는에 기초하여 보건교육을 발전시켜 왔다.

#### 보건교육은 권리, 학부모의 인식이 중요

#### -함께 보건과목 채택운동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보건교육은 법률이 보장한 아이들의 권리이며, 이는 각 학교에서 보건과목을 채택하는 것으로 보장될 수 있다. 최근 아동 성폭력관련 보도를 보면, 학교에서 보건교육을 받고 아이들이 성폭력임을 알게 된 사례가 소개되고 있다. 즉 보건은 입시주요 교과가 관치는 우리 현실에서 아이들의 삶의 기술skill을 발달시키는 혁신적인 교육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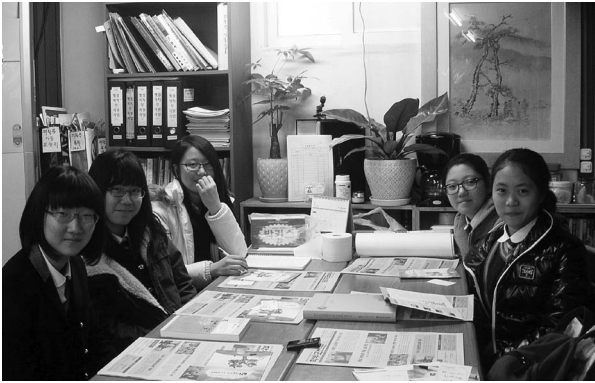
그러나 보건과목은 잘못된 통념, 교과의 이해관계, 정책의 부재 속에 기로에 선 채, 학부모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특히 중고등학교는 선택과목을 채택할 때 반드시 학부모에게 어떤 과목을 채택할 것인지 물어야 한다. 따라서 만일 학부모가 보건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건교과를 채택하도록 한다면, 각 학교에서 보건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될 것이다.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운동을 기대한다.

우유영(보건교육포럼 이사장)

끝나고 보니 준비한 것을 제대로 못한 것 같아 아쉬웠습니다.

지금도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시는 덕분에 학교생활이 더 즐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더 나은 학교생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기현(성심여고 1학년)



많았다. 그래서 ‘평생교육’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어떤 교육 강좌에서 들었던 내용을 소개할까한다.

부모는? 아이가 태어나 사춘기 전까지 아이가 안전하게 자랄 수 있게 예쁜 울타리를 쳐서 내 아이를 보호해야 하고, 사춘기가 되면 그 울타리 중간 중간에 문들을 만들어줘서 아이가 그 울타리를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해주고, 성인이 되었을 때는 자기 스스로 자신만의 울타리를 만들어 갈 수 있는 힘을 키워줄 수 있어야 한다.

그동안 아이들이 훌쩍 자라 중3, 초등 6학년이 되었다. 나는 지금 내 울타리에 여러 개의 쪽문을 만들어 열어놓았다. 내 아이들이 자신만의 울타리를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이미란(의정부지회 편집부장)

## 우리 아이들의 건강이 위험하다 입시열풍 속에 가려진 아이들의 건강



여가시간 세계 최하위, 체력수준 가파른 저하 등 건강수준이 세계에서 최하위를 독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아이들의 건강이 나빠지고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건강은 다른 국가 청소년들과 비교했을 때 심각하게 낮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학업에 치우친 일상생활로 신체활동 시간이 극히 부족하고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과 정신적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청소년의 신체활동 실천율은 외국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이다. 운동을 할 수 없으니 체력은 커졌는데 기초체력은 떨어지고 있다. 정신적으로도 건강하지 못하다. 2009년 고위험군으로 선별된 아동청소년의 비율은 초등학생은 약 11%, 중학생의 우울증 고 위험군은 15.1%, 고등학생 우울증 고위험군은 19.7% 수준이다.

이러한 결과는 심각한 수준의 청소년 자살과 자살시도로 이어지고 있다. 원래 청소년기는 자살로 인한 사망률이 가장 높은 시기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 정도가 매우 심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15~24세 청소년의 8.9%가 성적 문제 등으로 자살을 생각했으며 15~19세 10명 중 7명이 학교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응답했다. 2009년 전체 사망률 중 자살이 20대 1위, 10대 2위로 청소년 자살 사망률이 심각한 수준이다.

#### 비효율적인 학업시간과 턱없이 부족한 여가활동

이러한 건강수준은 학습위주의 생활행태에서 기인한다. 15~24세 학생의 평일 학습시간은 7시간 50분으로 5시간 전후인 외국에 비해 2시간 이상 길었다. 수면시간을 비롯해 운동시간은 비교 대상 국가 중 가장 짧았으며 특히 정규수업에서의 체육활동시간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정규 체육활동 시간마저도 입시과목으로 대체하고 있는 형편이다. 경제적 효율성의 측면에서도 한국식 교육방식의 비효율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비슷한 성적성취도를 보이는 국가들보다 엄청 많은 시간을 학업에 투자하고 건강을 챙기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비효율이 다. 게다가 그 성적이 공부시간을 늘려서만이 아닌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한 다양한 활동기회를 포기하고 얻어진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비효율적이다.

#### 문제는 시스템

여기에서 우리는 심각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 우리의 청소년은 과연 건강한가? 충분히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는 여건인데도 만족을 느끼지 못하며 낙담해진 것인가? 아니면 부모들이 아이들의 행복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인가?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삶은 상당히 힘들고 그 안에서 행복한 삶의 질을 누리고 살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청소년들이 낙담하거나 과보호를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쉽지 않은 압박과 학업량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부모들도 자녀들의 건강과 행복을 매우 바라고 있다.

현 상황을 바꾸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문제는 시스템이다. 누구도 그 치열한 레이스에서 먼저 내려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해결을 위해 교육의 기준을 새롭게 정해야한다. 청소년건강조례와 같은 건강기준을 정하고 건강에 위험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학습시간 규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신체활동과 다양한 사회활동 확대, 건강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건강능력의 개발 등 다양한 측면의 접근이 포함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교육의 목적은 학업성취만이 아닌 건강한 미래세대를 육성하는데 있다는 점에 대해 우리 사회가 합의해내는 것이다.

이은경(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사회복지분야 연구원)

## 유대인의 노벨상 교육 비결은 why?



“한국 엄마들은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무얼 배웠나 물어본다지요? 선생님께 ‘왜’라고 물으면 건방지다면서요. 그러나 대다수 유대인 엄마는 자기 애가 선생님께 무엇을 물어보았는지 궁금해 합니다. 세상에 바보 같은 질문이란 없기 때문이지요.”

나오미 마노르 전(前) 주한

이스라엘 대사 부인의 말이다.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왜?”(Ask why)라고 한다. 호기심에서 학문의 열정이 켜지기 때문이다.

상대성원리를 발표해 급세기 최고의 천체물리학자로 꼽히는 아인슈타인과 스타워즈, ET 등 상상력과 영감을 잘 살린 영화로 너무나 유명한 할리우드 출신 영화감독 스티븐그가 유대인이다. 세계적 바이올리니스트 이작 펄만, 화가 마르크스 샤갈, 정치가 헨리 키신저 등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세기의 예술인과 정치가들의 상당수도 유대인들이다. 유대인들은 특별히 IQ도 높지 않고 오랜 동안 세계 각지에 더

아스포라로 떠돌이처럼 흩어져 살아 체계적인 교육기관의 혜택도 못 받고 살았는데 어떻게 그 많은 세계적 석학과 예술가, CEO들을 배출했을까? 이 교육 비결은 무엇보다도 유대 민족 특유의 뿌리 깊은 가정교육 전통에 있다. 가정교육이 그 어떤 영재학교 프로그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다. 어

린 자녀와 함께 쉬거나 잠자리에 들 때도 꼭 책을 읽어주며‘ 배운다는 것이 정말 행복하고 즐겁다는 사실을 심어주는데 최선을 다한다. 또한 ‘좋은 질문이 좋은 답보다 훨씬 더 낫다는 유대 속담처럼 학습의 초점도 ‘항상 의문을 품고 온갖 질문을 쏟아내도록 분위기를 조성한다. 어린 시절 아이들의 끝없는 질문공세를 귀찮아하는 부모들이 많은데 이는 아이의 앞길을 가로막는 큰 장애인 것이다.

보통 서구에서는 극성스러운 교육열을 가진 엄마를 ‘유대인 엄마(Jewish Mother)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유대인 아버지의 교육적 권위도 큰 역할을 한다. 5살만 되면 벌써 유대민족의 상고사인 구약성서의 첫 다섯 편인 ‘토라를 가르쳐주어 민족적 자긍심을 키워주고 잘 배운 아이를 위한 특별 파티를 열어준다. 아버지는 자녀가 13세에 성인식을 치를 때까지 유대인의 역사와 율법, 철학교육을 책임진다. 그저 돈만 벌어서 주고 자녀 교육에 역할이 거의 없어 나중에 성장한 자녀들에게 푸대접 받는 요즘 우리나라 아버지들과는 전혀 다르다. 또한 국사를 대입 필수과목에서조차 빼버렸고 철학 교육이 거의 없는 우리나라 교육정책과도 정 반대인 셈이다.

그런데 뜨거운 자녀 교육열과 악착스러운 생활모습으로 ‘동양의 유대인’으로 불리는 우리나라 부모들은 자녀 교육을 학원이나 과외선생에게 떠맡긴 채 창의성이나 상상력과는 거리가 먼 주입식 입시위주 공부에만 골몰하고 있다. 오로지 일류대를 가기위해 앞줄에 서기 위한 선다형 시험문제

## 참교육학부모회를 다녀와서

안녕하세요. 저희는 성심여자고등학교 1학년 8반 아이들입니다. 11월 17일 참교육학부모회를 방문하여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첫 방문인지만 많이 낯설고 어색했지만 친철히 대해주시는 덕분에 편하게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고 우리 학생들에게 더 좋은 교육환경을 마련해 주기 위해 이렇게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였습니다. 또, 입시에만 치중하지 않고 진정한 학생의 편의를 고려하여 효율적인 교육을 이끌어 내는 것이 진정한 참교육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학교에 다니는 동안 참교육을 실현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얼마 전, 전면 체벌 금지에 대한 법제화가 이루어졌는데

참교육학부모회에서는 예전부터 ‘뿔’으로도 때리지 마세요라는 문구를 앞세워 체벌 전면 금지 운동을 벌여 왔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신 덕분에 폭력의 현장으로 변질될 수 있었던 학교가 제대로 설 수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체벌 금지라는 현안이 꼭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 의구심이 들었는데 비로소 그것이 풀린 느낌이었습니다. 교육공동구매에 대한 이야기도 잘 들었습니다. 공동구매 절차에 대해 궁금했는데 생각보다 까다롭고 복잡하여 놀랐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해주시는 덕분에 학교생활이 점차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를 가기 전에 꽤 많은 준비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미술실과 에나그램 등 이런 교육 강좌를 들으면서 내 생각이 조금씩 바뀌어가고 뒤이어 나의 행동도 변화됨을 느꼈다. 내가 배운 이론들을 한두 가지씩 생활에 적용해가기 시작했다. 나의 행동과 생각이 변화되면서 내 남편과 아이들도 저절로 변화됨을 느꼈다. 큰아이가 사춘기였을 때 큰 갈등 없이 지나가게 된 것도 교육 강좌의 힘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10월에도 우리 지회에서 ‘변화하는 아이들’ 바로서는 학부모교실이라는 주제로 교육 강좌를 열었다. 총5강으로 각기 다른 소주제로 진행되었다. 일주일애 두 번씩 시간 남짓 걸라는 먼 곳까지 교육을 받으려 가려나 은근히 귀찮은 맘이 들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 같기도 하고, 그런데 막상 강의를 들으면서 내 생각이 잘못된 것임을 깨달았다. 제목은 비슷하지만, 강의하는 강사분이 달랐고, 강의 내용도 달랐다. 내가 모르고 있던 사실들도

## 부모교육의 힘

내가 참교육학부모회 의정부지회 회원이 된지도 어느덧 9년. 처음‘부모교육아카데미’라는 강좌를 들으면서 인연이 되었다. 9년 전 큰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을 때, 부모교육 강좌는 내게 신선한 충격이었다. 내가 정말 맛모르고 아이를 키웠구나! 부모가 될 아무런 준비 없이 아이를 낳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무지하게 내 방식대로 아이를 키우고 있구나!

그때부터 난 교육관련 강좌가 있을 때마다 참석하여 교육을 들었다. ‘자녀와의 대화법’, ‘성교육’, ‘갈등해결’, MBTI성격형성검사’, ‘

이기영(초록교육연대 상임대표, 호서대 교육대학원장)



## TV를 좋아하는 아이를 위한 노력

서울YMCA 어린이 영상문화연구회는 모든 매체속에 담긴 어린이 대상 콘텐츠에 관심을 갖고 활동하는 어머니들의 모임입니다. 좋은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일을 우선으로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이들이 스스로 TV보는 시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몇 년 전 KBS는 아침에 방영하던 TV 유치원을 오후 시간으로 옮기면서 어린이 프로그램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 어린이들을 위한 시간대를 넓게 편성하고 〈후토스〉를 포함해서 〈TV유치원 파니파니〉, 〈엄마의 무릎학교〉 등 야심찬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그보다 더 전에는 시청자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KBS 뉴스 탐험〉이라는 정보 프로그램을 제작 방영하기도 했다. MBC는 현재까지 〈뽀빠이〉를 이어오고 있으며 〈호랑이 선생님〉은 요즈음에도 회자되고 있는 어린이 드라마의 대표작이다. EBS는 〈망귀대장 뽀빠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계속하고 있으며 양적으로도 가장 많은 어린이 유아 프로그램을 방영하고 있다.

반면 SBS는 대표 어린이 프로그램이라고 하기는 적절치 않지만 〈드래곤볼〉과 같은 수입 만화영화를 계속 방영

해왔으며 방송사를 대표하는 자체 제작 프로그램은 거의 없는 듯하다. 상업방송이라고는 하지만 늘 아쉬움이 남는다.

그동안 서울YMCA는 어린이 프로그램에 대해 양적 질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계속 지적하여 왔다. 물론 지상파 방송사에서 제작하는 어린이 프로그램이 가장 많고 또 그나마 좋은 편이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그리고 오랫동안의 경험을 비취보면 아직도 어린이 프로그램의 수준은 높다고 하기 어렵다. 케이블 TV는 어린이 채널과 애니메이션 채널 물량 공세를 퍼지만 내용은 지상파 방송사 제작 프로그램과 수입물이 대부분이며 자체 제작은 찾아보기가 어렵다. 따라서 지상파의 어린이 프로그램이 우리나라 대표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셈이다. 오랫동안 보여 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것이 많은 역할이 되리라 기대한다. 시간이 지나서도 좋은 의미를 줄 수 있는, 책에서 고전을 강조하는 것과 같이 영상물에서도 유행을 타지 않고 좋은 의미를 찾을 만한 작품들이 많이 제작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세대를 넘어서 존중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서는 우수한 제작진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예산도 반드시 지원되어야 한다. 방송사가 갖고 있는 능력을 십분 발휘할 수 있도록 어린이 프로그램 제작 환경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것에도 주목해야 할 것

이다. 각 방송사가 일정 비율 이상을 어린이 프로그램 제작에 편성하도록 하고, 방통위에서 지원하는 여러 제작지원사업에 어린이 프로그램 항목을 별도로 두어 적어도 방송사별로 한 편 이상은 우수한 프로그램이 제작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하는 제단을 설립하는 것과 같이 사회가 나서서 어린이들이 볼만한 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

또한 방송이 갖는 오락, 교육, 정보제공 등과 같은 주요 기능 중에 오락적인 것만 강조되고 정보제공의 기능은 지나치게 축소되지 않도록 다양한 형식의 프로그램 제작을 격려할 필요가 있다. 인쇄 매체로서 소년지는 오래전부터 어린이들에게 익숙한 데 비해서 TV 어린이 뉴스는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어린이들이 성장해서 미래 지도력이 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역할하기 위해서는 상상력도 필요하지만 사실감 있는 메시지를 전달 받고 현실 사회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프로그램의 질적 개선과 이를 위한 재정 마련, 프로그램 장르의 다양화 및 정보 프로그램의 확대 등이 어린이 프로그램의 발전을 위해 꼭 이루어져야 하는 것들이다. 이런 것들이 가능하면 좋은 어린이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부모들이 나서서 기금도 만들고 내용도 제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본다.

안수경(서울YMCA 어린이영상문화연구회 간사)

## 10집 앨범 발매, 노래하는 노동자 ‘안치환’ 을 만나다



‘안치환과 자유’ 10집 발매를 기념하며 오는 12월 29일(31일)까지 서울 서강대학교 피아노에서 콘서트가 열린다. 콘서트 수익금 일부를 참교육학부모회에 기부하는 안치환 씨. 1남 1녀를 둔 아버지이기도 한 안치환 씨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많은 청소년들은 자신의 진로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음악인으로의 삶을 결정하게 된 계기를 말씀해 주세요.

자연스러웠어요. 어릴 때부터 노래를 잘하는 꼬마였고, 초등학교 졸업식 날 큰형이 기타를 구해줘 고등학교 때까지 가지고 놀았어요. 대학 가면 대학교요제에 나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대학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때 공연했던 선배들이 좋아서 노래패 ‘울림터에’ 가입했어요. 3학년부터는 〈새벽〉이라는 대학노래연합팀에서 활동했고 4학년 때 발표한 ‘술아 푸르른 술아’가 당시 6월항쟁과 맞물리면서 많이 불렸죠. 그리고 졸업 후에 보다 전문적인 음악활동을 하고 대중적인 노래운동을 하기 위해 〈노래를찾는사람들〉을 결성하게 되었어요. 유학이나 취

업을 준비하는 다른 친구들의 고민과는 달랐습니다.

음악인의 삶. 그 과정이 즐겁고 행복하셨나요?

후회한 적은 없나요?

후회하거나 음악하는 것 자체에 좌절하고 힘든 적은 없었어요. 하지만 대중가요 시장에 들어와서는 시스템에 적응하기 쉽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 독재 시대가 끝나고 노래운동에 대한 대중적인 관심이 멀어지면서 한때 혼란스러움이 있었죠.

좋아하는 일을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다면 행복하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런 부류 중의 한 명일 것 같아요. 욕심이 있다면 진정한 뮤지션이 가야할 길을 묵묵히 가면서 대중에게 보여주고 증명해 보이고 싶어요. 고인 물이 아니라 흐르는 물 같은 뮤지션이고 싶어요.

그럼 안치환 씨의 자녀는 어떤 아이로 성장했으면 하나요?

어느 부모가 유치원 때부터 사교육시장으로, 경쟁교육에 내보내고 싶겠어요. 어릴 때 맛껏 뛰놀고 풍부한 정서 속에 자라고 공부도 좀 해서 대학에 가고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해서 자신의 꿈을 이룬다면 좋겠죠. 하지만, 이런

교육 현실 속에서 필가를 바라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생각도 들고 현재의 시스템에서 어떤 가치를 얘기하면 뭐하나 싶어요. 학교가 원하는 데로 따라가지 못하는 아이들에겐 학교는 지옥이죠. 능력이 많은 아이들이란 살아남는 시스템에서 벗어나야 해요.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바라는 학교(교육)의 모습은?

학교가 좋은 대학에 보내는 것으로 성과를 올리는 것에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선생님이라면 지식의 전달자는 기본이고 아이들의 정서와 인격, 아이들이 모르는 세상에 대한 전달, 철학이 곳곳에 묻어나고 그걸 가르쳐야 하는데 무엇도 할 수 없게 만드는 구조잖아요. 교육시스템이 선생님을 교관으로 축구팀의 코치처럼 몰고 가기 때문에 진정한 선생님을 기대하는 게 불가능한 시스템인가 같아요.

벌써 10집 앨범이 나왔네요. 10집이라는 의미가 남다른 텐데요.

9와 10은 느낌이 다르죠. 9집은 지리산에서 ‘반야불이’ 라면 10집은 ‘천왕봉’이라 할 수 있겠죠. 10집이 20년 걸려 만들어진 숫자이기 때문에 개인적인으로도 의미가 있고

### 사설

## 무늬만 입학사정관제, 반칙을 일삼는 고려대

2011년도 수능이 끝났지만 수험생들은 이제부터 본격적인 입시준비를 시작한다. 올해 유독 수능이 어렵게 출제된 탓에 상대적으로 수능 점수가 낮게 나와 불안해진 수험생들이 수시 2차에 대거 지원하면서 경쟁률이 작년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수시는 정시에 비해 수능 점수보다는 대학 별 논술과 면접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상보다 수능 점수가 낮게 나온 많은 수험생들이 후사나 싶어 수시에 희망을 걸어 본다. 하지만 결국 수시 전형도 외고생 차지다. 더구나 수시전형 입학사정관제는 외고전형이라 불릴 만큼 각 대학들이 외고생을 우대해 왔다.

특히 고려대의 특목고 우대 입시전형은 노골적이다. 대교협은 분명히 공교육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소로써 ‘토익, 토플, 텡스, 교와수상, 영어면접’ 등을 주요 전형요소로 금지했다. 하지만 고려대는 2011년 1차 수시에서는 입학사정관 전형인 세계선도인제 전형을 실시하면서 대교협이 정한 입학사정관제 공동기준마저 어기면서 오히려 ‘뛰

런 횡포는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2009년 수시 일반전형에서 ‘고교등급제’를 적용했다가 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로 대부분 ‘대학의 독단적 입시관행에 제동을 걸고 법원이 대학 횡포 막은 것’이라며 환영했으나 고려대는 아랑곳하지 않고 법 위에 있는지 보란 듯이 올해도 지침까지 어기면서 일본도 수험생과 학부모를 속이는 불공정한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고려대가 이렇게 바짓대 반칙을 일삼는 이유는 배짱이 든든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입학사정관제는 이명박정부의 대입자율화와 고교다양화 정책과 맞물리면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육정책이다. 정부가 나서서 대학에 재정지원까지 하면서 확대 시행하고 있다. 국영수 중심의 입시교육으로 공교육을 황폐화시킬 것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2009년 개정교육과정을 밑거름이면서 그것을 정착시키기 위한 2014년 대입선진화 방안을 봐도 이명박 정부의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애착은 대단하다. 입학사정관제는 특권층을 더욱 공고히 하고 고교등급제에 정당성을 주는 것이라고 아무

리 비판을 해도 듣지 않고 학생의 잠재력과 창의력을 보고, 학교수업을 열심히 공부한 학생을 뽑는 전형이고, 획일화된 공교육을 살리는 모책으로 열을 내어 홍보한다.

하지만 개천의 용은 생애나기에 불과하고 상위권 대학들이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특목고생을 씹을아해도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교과부와 대교협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법원이 ‘고려대가 의도적으로 입류고 출신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해 고등학교별 학력 차이를 입학전형에 반영했다’며 ‘위법하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확장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정개여부를 예단할 수 없다’며 어정쩡한 태도다. 그러니 고려대는 더 가교판장하며 대교협의 약속을 헌신짝 내팽개치듯 하는 것이다. 사회적 책임이 큰 대학이 우리 교육의 발전보다는 이기적으로 특목고생을 골라 뽑기 위해서 이렇게 사회적 약속을 무너뜨리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정부는 고려대에 엄정한 제재와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야 한다. 그것이 그나마 ‘공정한 사회’로 가는 첫 걸음이다.

요, 세상에는 천왕봉만 아니라 허말라이도 있는 거니까 계속 가야할 길은 있는 거지만 개인적으로 나를 잘 왔다고 생각해요. 보통 앨범에 10곡정도 넣는데 이번엔 시대적인 내용의 노래와 서정적인 노래를 나눠 2개의 앨범으로 냈어요.

‘개방조는 지금 대중들의 모습이고 ‘그래, 나는 386이다’는 386의 어떤 추억과 자기의 삶과 희망에 대해서 세상에 외치고 싶은 마음, ‘마흔 즈음은 40대 나이에 느끼는 자신에 대한 애기, ‘떨떨은 우리 세대에 대한 위로와 응원곡, 어떤 유언은 땅우병 촛불집회를 같이 경험하면서 그 경험을 노래로 만든 것이고, ‘이무기’는 MB정권 지도층이란 인간들에 대한 느낌, ‘내 이름은 비정규직’과 ‘내 친구 그의 이름은’은 노동자들에 대한 연대의 마음으로 만든 노래이고, ‘나는 노래하는 노동자’는 제 스스로 노래하는 노동자라고 규정지으며 만든 노래예요.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노동자이고 노동자 의식을 가져야한다고 생각해요. 모든 노동자가 처음부터 자신이 ‘노동자’라고 생각했을까요? 대부분 나는 ‘회사원이야’라고 생각하지 노동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본에 의한 억압과 핍박을 당하면서 투쟁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존재와 의식을 깨우는 일이었을 거고 그런 일이 있어야 노동자란 의식을 갖게 되죠. 저는 노동자가 노동자란 의식을 가졌으면 해요.

2부는 서정적인 노래예요. ‘오늘이 좋다는 20년 만에 동창회’하고 나서 느낌을 적은 것입니다. 각자 다양한 삶을 살고 있지만 현대사회의 많은 굴곡찬 일들을 겪어오고, 앞으로 겪어갈 나이인데 태평성대를 사는 것보다 오늘의 우리를 사는 게 좋다는 말이에요. 나머지는 다 지칠한 사랑노래들이예요.(웃음)

앨범 자켓 사진은 모두 공연 때 팬들이 찍어준 사진이구요.

음악인으로 대중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술아 술아 푸르른 술아’나 ‘철의노동자를 만든 안치환부터’ ‘내가만일’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를 만든 안치환까지 노래 소재의 스펙트럼이 넓다고 생각해요. 대중가요는 남녀의 시시콜콜한 사랑에 대한 주제-물론 사랑은 인류가 소중하게 간직하고 실천해나갈 가치이지만가 99.9%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그것만이 노래 주제여야 할까요? 다양한 정서와 균형을 맞춰 줄 수 있는 노래를 제공한다는 것도 노래운동의 길이자 주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시대에는, 자본주의가 갈수록 심해지는데 인간과 자본, 노동과 자본, 환경의 문제, 분단과 평화의 문제, 그런 얘기를 할 사람들이 뮤지션이라고 생각해요. 나이가 들어가고 있지만 사회변화의 동력은 젊은 세대들한테 많은 뮤지션들이 그런 얘길 한다면 계관으로 바위치기가 아닌 그 계관이 쇠망이가 될 수 있지 않겠어요? 다양함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은 대중가요의 축복이고 대중들에게는 행운이죠. 그런 친구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참교육학부모회에 대해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참교육학부모회 알고 있어요. 티브이에 자주 나오시잖아요.(웃음) 전교조 선생님들 노래패와 함께할 때 ‘행복은 성직순이’ 아니잖아요? 노래도 만들었는데 짧게, 합니사라는 말씀 전합니다.

정리 : 원소영(상근활동가)

발행처 사단법인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발행인 정문숙 편집위원 송환웅 오명실 이희정 임영희 강인수 주수 (우)110-100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남동 73번지(2층) 전화 02-393-8900 전술 02-393-9110 상담실 02-393-8980 누리집 www.hakbumo.or.kr 한글주소 참교육학부모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 정문숙 수석부회장 송환웅 부회장 김석순 최주영 김 사 임영희 서경자 정복순 상담실장 박부희 정책위원장 윤숙자 교육자서위원장 전은자 조직위원장 최주영 언론정보 출판위원장 송환웅 상근자 심정숙 원소영 박수이 강인수		
서울지부	023491-5235	지부장 최정화
	남부지회 02688-8980	지회장 김혜송
	동북부지회 023491-5235	지회장 최정화
인천지부	023439-3970	지부장 김은중
경기지부	031884-3968	대행 김부정
	고양지회 031905-5893	지회장 이현숙
	구리남양주지회 031568-2311	지회장 차정희
	성남지회 031716-8583	지회장 김윤주
	안양지회 010-2215-2536	지회장 이정심
	양주지회 010-8915-5248	지회장 정영미
	용인지회 031281-7939	지회장 조소희
	의정부지회 031676-2816	지회장 오명실
	파주지회 031955-2623	지회장 김부정
	수원지회 010-9196-2075	지회장 정영훈
	김포지회 070-7761-9890	지회장 이종석
강원지부		
	원주지회 033763-6423	지회장 윤금옥
	041576-6677	대행 손정희
충남지부	천안지회 0417676-6677	지회장 박갑주
	홍성지회 010-5420-3979	지회장 조성미
	서산태안지회 011-430-3414	지회장 이희출
광주지부	062228-6998	지부장 최은순
전북지부	063635-0191	지부장 권승길
	전주지회 0639231-9770	지회장 임혜순
	정읍지회 063635-0191	지회장 정세희
	061934-9271	지부장 오송주
전남지부	목포지회 061284-6675	지회장 김승진
	화순지회 061375-9109	지회장 문은아
	나주지회 061934-9271	지회장 박정연
	장흥지회 011-631-1074	지회장 신성호
	영암지회 010-9473-6876	지회장 정미숙
	광양지회 010-5622-5333	지회장 이희정
	063751-4070	지부장 양승희
대구지부	051556-1799	지부장 채승영
부산지부	052268-0987	지부장 최선미
경북지부	017-511-9143	지부장 신현자
	안동지회 010-2971-0780	지회장 김승곤
	포항지회 054242-9143	지회장 천금순
	구미지회 011-506-2601	지회장 김성희
	상주시지회 010-2276-2338	지회장 김미경
	영성지회 010-8422-0923	지회장 임창대
	경주시지회 010-7980-8796	지회장 신영진
	철곡지회 011-9582-8334	지회장
	059282-1950	지부장 김미선
	전주지회 059748-1352	지회장 김미선
	거제지회 059638-4130	지회장 최양희
	마창진지회 059282-1950	지회장 진인애
	김해지회 010-3359-9579	지회장 임정현
	거창지회 059942-6272	지회장 유수상
	밀양지회 010-9955-0148	지회장 하정훈
준비위원회	성동준비위	

지문위원회 • 이원환(지문위원장·전 이화대 교육학과 교수)원순현(신대 교수)장지원(법률사무소 청지 변호사)권정희(늘이미디어교육연구소장)김기태(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김민남(전 경북대 교육학과 교수)김영성(성동굴로법정 고등학교 교사)김용열(한국해양대 교직과정 교수)김이강(한국교육개발원 교원정책 연구실 실장)김용철(신화정보산업 공인회계사)김희은(여성사회교육원 원장)도종현(사단법인대(학)신학원)김영민(사무소 변호사)박수선(원불교대노년복지실장)배정 센터 소장)배복영(한국금융지주연세대학교 상임대표)송대현(전교조 경북지부 상임 교수)송병준(변호사)송승준(제갈산대 기독교교육학과 교수)이재현(한국교육개발원 평생교육센터 소장)임태복(신대 유아교육과 교수)전영숙(서울미래교육센터 소장)정홍택(삼남대학교 석좌교수)조성현(법무법인 창조 변호사)최문순(국회의원)최현성(전 강릉대학교 총장)황수영(아이디어인사)권문교(교실 관원)



# 개똥이네 놀이터

## 창간 다섯 돌맞이 선물 큰 잔치!

행사 기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정기 구독(재구독 포함)을 신청하시면 보리에서  
퍼낸 책 6만 원어치를 선물로 드립니다.(아래 여섯 가지 가운데 한 가지 선택)  
1. 보리 국어사전 + 풀이 좋아  
2. 할머니, 어디 가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묶음(4권) + 풀이 좋아  
3. 두근두근 탐험대 1~5(5권) + 안녕, 전우치? 1, 2권(2권)  
4. 세밀화로 그린 보리 어린이 도감 묶음(2권 선택)  
- 식물 도감, 동물 도감, 곤충 도감, 나무 도감, 동물 흔적 도감, 풀 도감  
양서 파충류 도감, 갯벌 도감, 민물고기 도감, 새 도감, 버섯 도감  
5. 백창우 아저씨네 노래창고 묶음(2권 선택)  
- 노래처럼 살고 싶어, 바보처럼 착하게 서 있는 우리 집,  
나무 꼭대기 까치네 집  
6. 보리 출판사 책 6만 원 구매권 (재구독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정기 구독자님께 천원 염색으로 만든  
예쁜 바랑(어린이 천가방)을 드립니다.  
\*바랑은 변산공동체학교에서  
직접 염색한 천으로 만들었습니다.

색상과 모양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모든 정기 구독자님께  
2011년 탁상 달력을 드립니다.  
(12월호와 함께 발송)



- 모든 정기 구독자님을 대상으로 아이와 함께 즐기는 강연회를 엽니다.  
실뜨기 놀이(강사: 편해문) - 2010년 12월 12일(일) 오후 2시(선착순 30명) □  
동영상으로 만나는 새 이야기(강사: 권오준) - 2011년 1월 11일(화) 오후 2시(선착순 50명) □  
\*강연회는 보리 출판사(경기도 파주시) 안에 있는 '보리 책놀이터'에서 열립니다.  
신청은 전자 우편(corelk@boribook.com)으로만 받습니다.  
문의 전화: 031-950-9530

- 부모와 어른을 위한 잡지,  
〈개똥이네 집〉을 덤으로 드려요.  
153×220mm | 100쪽 안팎 | 단색  
한 달치 3,000원 | 1년 정기 구독 36,000원  
\*〈개똥이네 집〉만 따로 정기 구독할 수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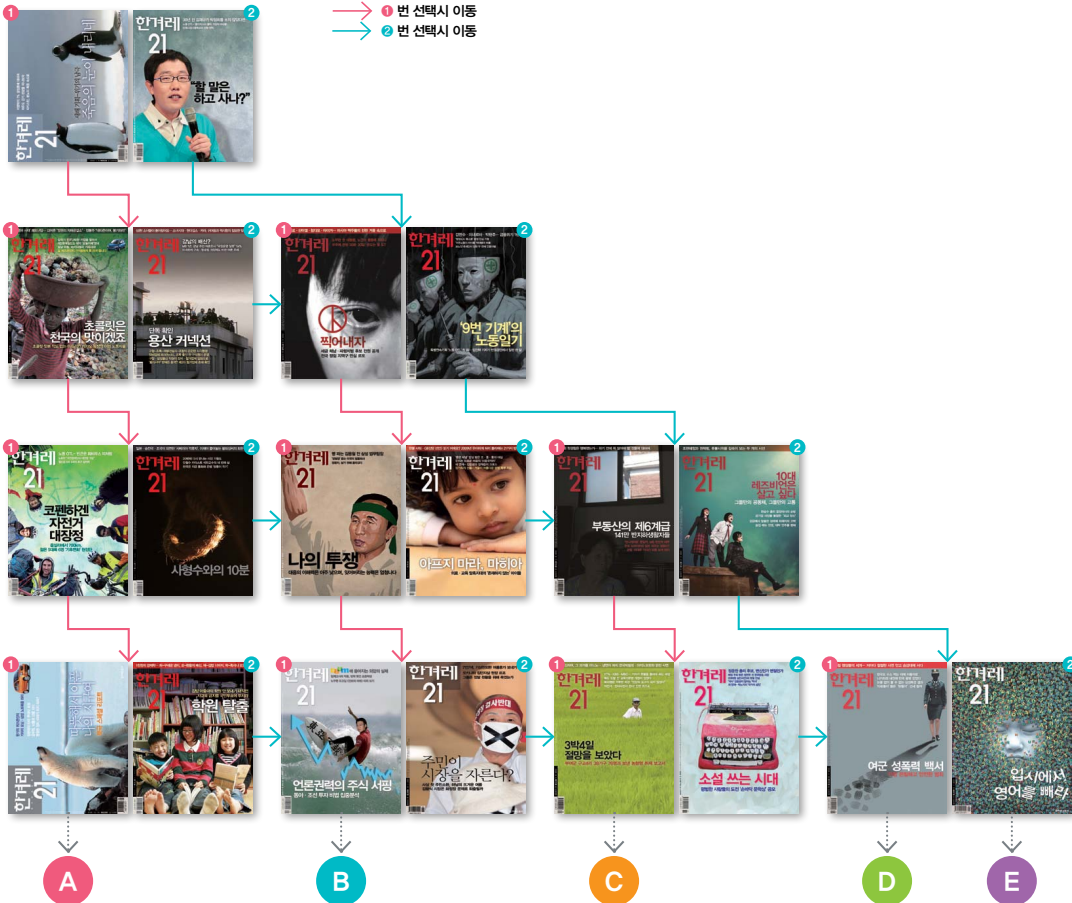


구독 문의 080-955-3700(무료 전화), 031-955-3700 누리집 www.boribook.com 독자 카페 http://cafe.naver.com/gaeddong2 보리

바른 소리·바른 단체를 돕는 아름다운 동행 캠페인 h21

## 당신의 찰떡궁합 시민단체를 찾아보세요

마음에 드는 표지를 선택하세요



### A 위아더월드형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모임  
녹색연합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동북아평화연대  
부산민주환경기념사업회  
여성환경연대  
인권과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지리산생명연대  
청년평화센터푸름  
페어트레이드코리아  
평화네트워크  
평화박물관건강추진위원회  
한국공정무역연합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동물복지협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 B 매서운 눈초리형

공공미디어연구소  
공익변호사그룹공감  
녹색교통운동  
미디어스  
민족문제연구소  
민주연론시민연합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언론소비주권국민행매인  
진실을 알리는 시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코리아연구원  
학벌없는사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C 함께 사는 세상형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상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  
노들장애인야학  
두리하나  
불편티어21  
서울시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서울시립지적장애인복지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청년한인사회  
한국여성노동자회  
행복한세상복지센터  
희망의려브하우스

### D 인권지킴이형

다산인권센터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반성매안권행동이름  
사회복지연대  
아시아의친구들  
연니네트워크  
우양  
여민이아깨동무  
이주민과함께  
인권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인우회  
한국여성연대

### E 대안 찾기형

고양시민회  
대안영상문화발전소 아이공  
로터스월드  
문화연대  
열린사회 시민연합  
영동포산연구소  
원주시민연대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작은자아간학교  
전국귀농운동본부  
지구촌나눔운동  
평화와함여가는인연연대  
푸르메재단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청년영화협회  
희망나눔동작네트워크  
희망제작소

지금 한겨레21 혹은 h21로 정기구독 신청하시면 구독료의 10%를 해당 시민단체에 전달하겠습니다.

http://h21blog.hani.co.kr | 02-710-0501~2